



대한민국 청년 초청 사업

1988

국제협력사업단
연수사업부

ARY



대한민국 청년 초청 사업

JICA LIBRARY



1073380[6]

19075

1987

| |
|-------|
| 青業 |
| JR |
| 88-44 |

国際協力事業団

19075

머 리 말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우정과 신뢰관계의 맺음을 목적으로 1986년 9월에 中曾根(나카소네) 전 총리대신에 의해 제창된 「대한민국 청년 초청사업」은, 다음 해인 1987년 11월 7일 근로청년, 농촌청년, 청년 지도자A, B의 4개 그룹으로 된 100명의 청년이 일본에 옴으로써 5년간의 우정계획에 제 일보를 내딛었습니다.

일개월에 걸친 초청기간 중 합숙세미나, 홈스테이, 각종시설 및 기업시찰등과 같은 여러 기회를 통해 한국의 청년 여러분은 일본의 각지에서 좋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의 생활을 직접 피부로 느끼시고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청년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일본 청년 여러분들로부터도 언어나 생활습관 같은 것을 넘어 서로 공감할 수 있었다는 만족의 말씀을 많이 전해받아, 이 프로그램이 의의있었던 일이라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참가 한국 청년 및 합숙세미나 참가 일본 청년, 청년을 받아주셨던 홈스테이 가정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감상문을 중심으로 일개월의 체재 기록을 게재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대한민국 청년 초청사업」의 여러 기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의 추억의 표시가 되고, 또 참가자의 체험과 감상을 보다 많은 분들께서 공유하실 수 있는 재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해와 협력에 의해 본 계획이 무사히 첫해를 마치게 된 것이 지상을 빌어 마음으로부터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청년 초청사업」이 다음해 이후에도 더욱 더 의의있는 교류 프로그램이 되도록 계속하여 한층 더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88년 3월

國際協力事業團 (국제협력사업단)

研修事業部部長 (연수사업부 부장)

岡部 和夫 (오카베 카즈오)

신뢰와 우정에의 출발

1987년도 한국청년 초청사업



宇野外務大臣
(우노 외무대신)예방

12월 7일, 한국청년이 외무성으로
宇野外務大臣(우노 외무대신)을 예방

◀宇野外務大臣 (우노 외무대신) 의 인사

宇野外務大臣 (우노 외무대신) 과 기념사진촬영 ▼



11월 8일 오후, 한국청
년일행 100명이 나리타
공항에 도착.

나리타공항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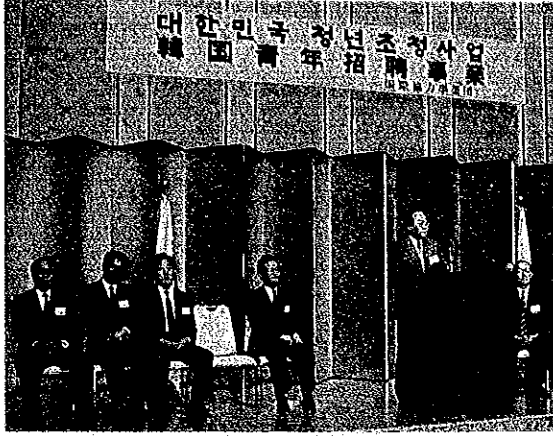


▲ 일본에 도착한 청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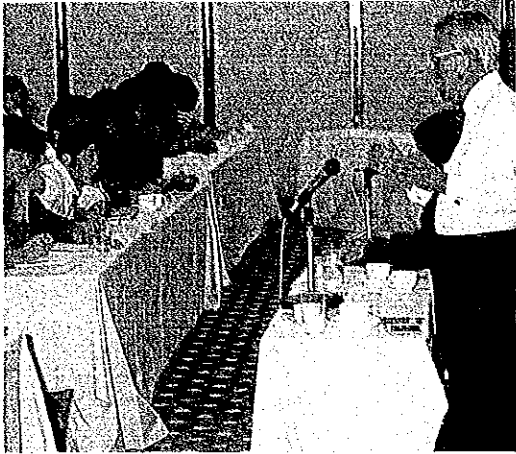
◀ 버스를 타고 호텔로 출발

회
포
회



▲ 成峇蕉總團장이 청년을 대표하여 인사
환영 인사를 하는 國際協力事業團(국제협력사업단) 牟田口
(무타구찌) 부총재





공통 프로그램

◀ 강의「일본과 한국」
早稲田(와세다)대학의 鳥羽欽一郎
(도바 킨이찌로) 교수



강의「일본의 산업사」▶
早稲田(와세다)대학의
市川孝正(이찌가와 다
까마사) 교수





림과학 박물관 ▼

▲ 과학관에서의 즐거운 교환



전기통신 과학관 견학 ▼





▲ 환영 인사를 하는
日本武道館(일본부도칸)의
木島(키지마)상임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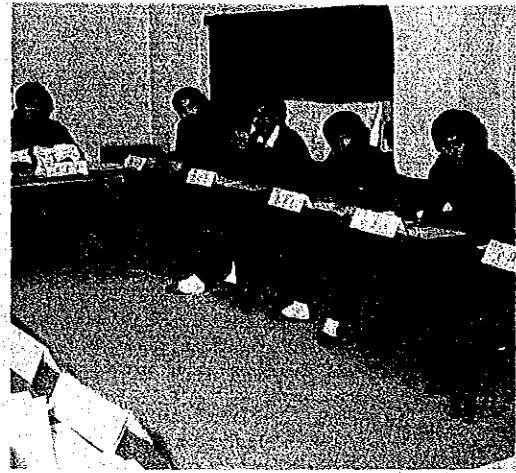


▲ 일본의 무도가 과 마음을 터놓고 교류



◀ 일본의 전통무도에 도전





▲ 진지한 태도로 진행된 토론

몸짓 손짓으로 활기찬 대화 ▼

합숙
세미나



즐거운 저녁식사의 한때 ▼





▲ 한일양국의 애창가를 피로



▼ 한일대항의 팔씨름



◀ 스포츠를 통하여 넓어지는 한일우정의 테두리



▲▲ 勝沼(카츠누마)의 와인공장에서



▲ 신선한 와인으로 건배 ▲

분야별 피로그램

▼ 그 지방의 국민학교를 방문



▼ 정성어린 선물의 교환



▼일본의 선단기술에 눈을 빛내는 청년들



▶전자 현미경의 설명을 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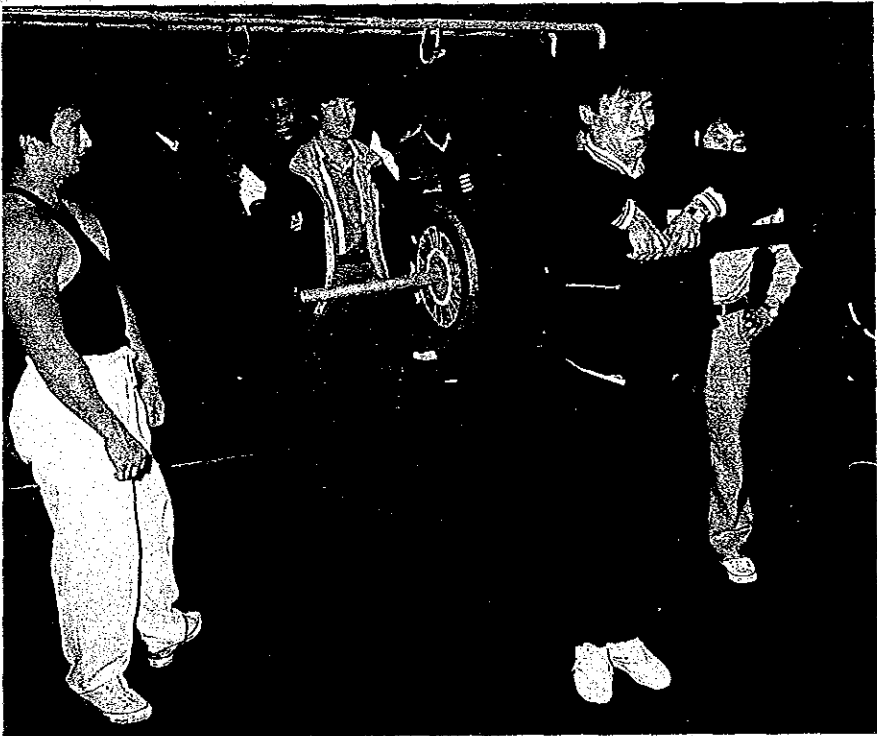
▶열심히 계속되는 질문



◀ 기모노 입는 법



▶ 역기 동호회에서의 교류





▲ 여고생과 요리실습
◀ 종이뜨기 에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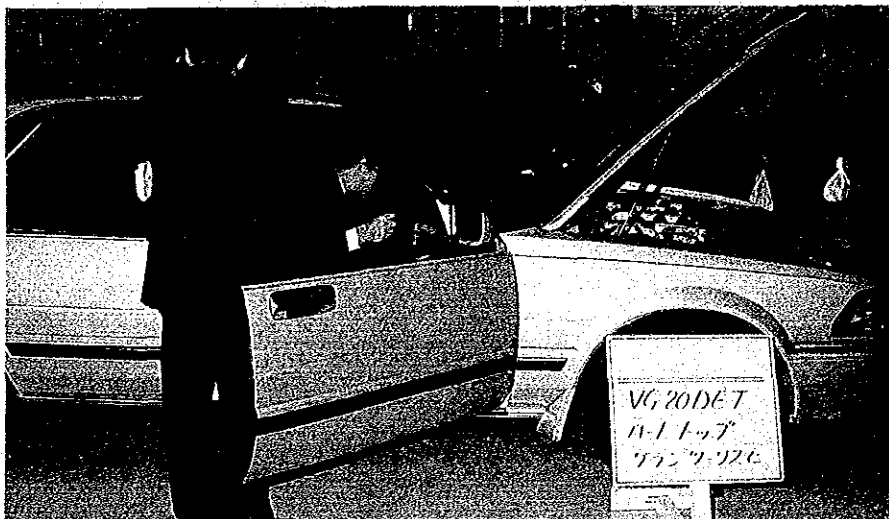


▲ 和服(키모노:일본의 전통의상)를 입은 여성들과茶道(사도)를 즐김



▲ 양재 수업에서

▼ 자동차 공장 견학



홈 스테이

▼ 식사후의 즐거운 한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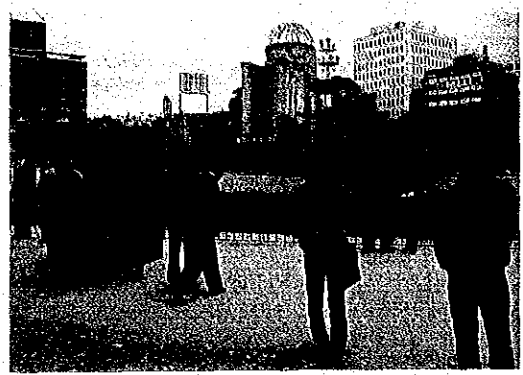


▼ 홈 스테이 가정의 어린이들과 근처의 학원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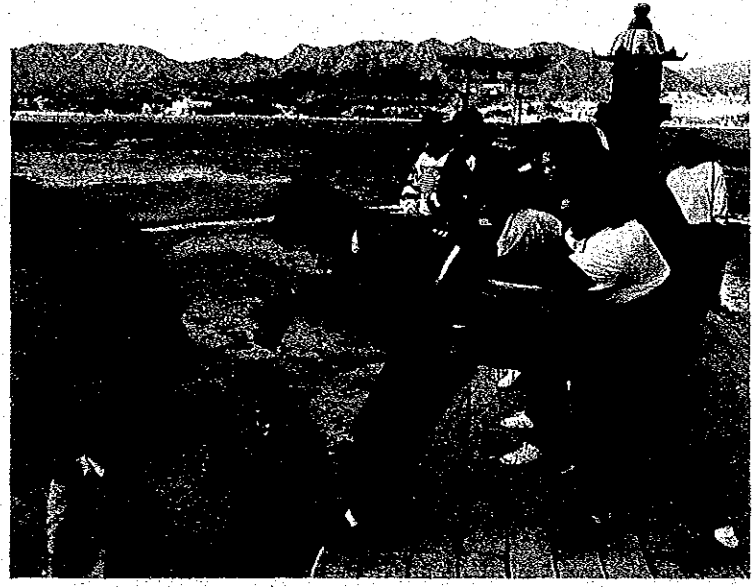


◀ 근처의 사람들과 즐겁게 지낸 하루

견학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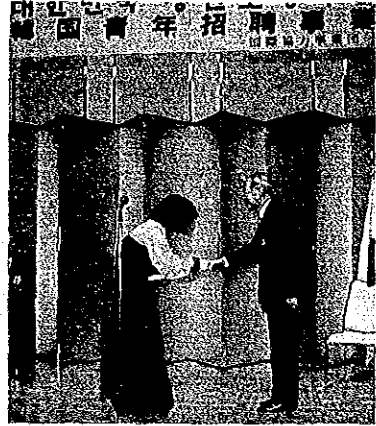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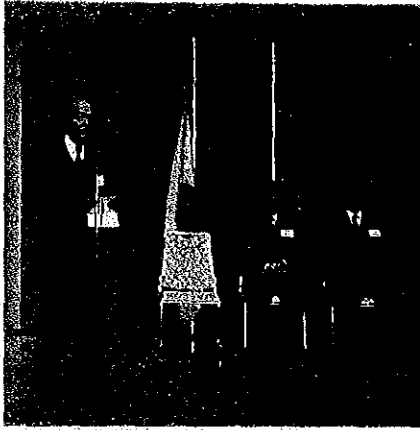


▲ 원자폭탄돔을 방문
아름다운 宮島(미야지마) ▼



사슴에게 먹이를 주면서 ▲

환
송
회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
「여러분, 안녕」



언제까지나 계속시키자,
한일우정의 유대



코디네이터와의 이별

귀국

한국청년 일행은 12월 8일
무사히 귀국길에 올랐다

여러가지 생각을 가슴에 품고 ▼



차 례

머 리 말

1. 대한민국 청년 초청사업

(1) 사업의 개요 3

(2) 실시단체·인수현 일람 5

(3) 초청청년 내역 5

(4) 실시일정 6

2. 초청 청년 감상문 14

3. 합숙세미나 참가 일본청년의 말 25

4. 홈스테이 가정이 느낀 인상 29

5. 초청 청년 명부 33

6. 관련 청소년 단체 주소록 43

1. 대한민국 청년 초청 사업

(I) 사업의 개요

① 목적

21세기를 향하여, 한국과 일본의 우호와 협력관계를 보다 확고하고도 결실있는 관계로 하기위해, 미래의 국가 건설을 담당하게 될 한국청년을 일본에 초청하여, 일본의 동세대 청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돈독히하고 진실한 우정과 신뢰를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실시방법

(가) 초청방법

1987년도는 100명의 한국청년을 초청한다.

(나) 초청기간

1987년 11월 8일~12월 8일

(다) 초청대상자

아래와 같은 분야에 있어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청년남녀(연령18~35세전후)

(I) 근로청년(35명)

- 도시근로 청소년20명및 관련과학기술분야 청년15명
- 노동부, 과학기술처의 추천

(II) 농촌청년(25명)

- 농촌근로 청소년20명및 관련과학기술분야 청년5명
- 농림수산부, 과학기술처의 추천

(III) 청년지도자A(20명)

- 청소년단체의 지도자 20명
- 청소년단체협의회, 체육부, 문화공보부의 추천

(IV) 청년지도자B(20명)

- 청소년지도 관련공무원(스포츠, 문화, 사회활동등)및 청소년단의 지도자
- 청소년단체 협의회, 체육부, 문화공보부의 추천.

수일장 일본도착 31일장 귀국

③ 프로그램개요

| | | |
|---------------|--|---|
| 현 지 프 로 그 램 | 현지 강시에 의한 일본에 관한 강의 일본어의 일상회화 학습 도항에 관한 설명 | |
| 공 통 프 로 그 램 | 일본의 전체상에 관해, 정확한 이해를 촉진 하기 위한 강의 및 시설견학 | |
| 분 야 별 프 로 그 램 | 도내분야별프로그램 | 각분야의 전체상에 관해, 정확한 이해를 촉진 하기 위한 강의 및 시설견학 |
| | 합숙세미나프로그램 | 일본의 같은 세대, 같은 분야의 청년과 접촉 을 같이하는 의견교환, 교류의 자리 |
| | 지방분야별프로그램 | 지방에서의 관련시설 견학, 지방청년과의도 론, 체험, 교류등의 프로그램진개 |
| | 홈스테이프로그램 | 일본의 가정생활 체험 |
| 견 학 여 행 | 広島(하로시마), 京都(쿄오토)등 역사적 도 시의 견학 | |
| 평 가 프 로 그 램 | 체일성과에 관한 의견교환 | |
| 아 프 터 케 아 |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각종 시책 | |

④인수체제

본 계획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다음의 두
위원회를 설치한다.

關係省庁調整連絡會議

(관계기관 조정연락회의)

임무: 본 계획의 실시 및 운영에 관계되
는 기본적 사항에 관한 협의.

구성멤버:

外務省經濟協力局技術協力課
(외무성 경제협력국 기술협력과)
アジア局地域政策課
(아시아국 지역정책과)
文化交流部文化第二課
(문화교류부 문화제2과)

總務庁青少年対策本部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
文部省學術國際局國際教育文化課
(문부성 학술국제국 국제교육문화과)
農林水産省經濟局國際協力課
(농림수산성 경제협력과)
労働省労働基準局賃金福祉部労働青少年室
(노동성 노동기준국 임금복지부 근로청소년실)
自治省大臣官房企画室
(자치성 大臣官房(다이징칸보우) 기획실)
國際協力事業団
(국제협력사업단)

実行連絡調整委員會

(실행연락조정위원회)

임무: 실행계획의 운영, 분야별프로그램
의 실시 및 각 프로그램간의 연대에
관해 협의하고, 프로그램실시상의 문제
에 관해, 국제협력사업단에게 조언.
구성멤버: 관계성, 청에서 추천된 민간
각 단체.

(㉞)青少年育成国民會議
(사)청소년 육성 국민회의)
(任)中央青少年団体連絡協議會
(인)중앙 청소년 단체 연락협의회)
(㉟)世界青少年交流協會
(재)세계 청소년 교류협회)
(㉡)日本國際生活体験協會
(사)일본 국제 생활 체험협회)
(㉢)全國農村青少年教育振興會
(사)전국 농촌 청소년 교육진흥회)
(㉣)日本經濟青年協議會
(사)일본 경제 청년협의회)
(㉤)勤勞厚生協會
(사)근로후생협회)
(㉥)ユースワーカー能力開發協會
(재)유스워커 능력 개발협회)
(㉦)國際交流サービス協會
(사)국제 교류 서비스협회)
(㉧)青年海外協力協會
(사)청년 해외 협력협회)
(㉨)國際協力サービス・センター
(재)국제 협력 서비스 센터)

(2) 실시단체 · 인수현 일람

| 분야명 | 인원수 | 실시협력단체 | 실시현 | 지방협력단체 |
|---------|-----|--------------------------------|----------------|----------------------------------|
| 근로청년 | 35 | 青少年育成国民会議 (청소년육성국민회의) | 神奈川県 (가나가와) | 韓国青年歡迎委員會 (한국청년환영위원회) |
| 농촌청년 | 25 | 中央青少年団体連絡協議会 (중앙청소년단체연락협의회) | 青森県 (아오모리) | 青森県青少年団体連絡協議会 (青森県청소년단체연락협의회) |
| 청년지도자 A | 20 | 中央青少年団体連絡協議会 (중앙청소년단체연락협의회) | 栃木県 (토치기) | 栃木県青少年団体連絡協議会 (栃木県청소년단체연락협의회) |
| 청년지도자 B | 20 | 国際交流サービス協会 (국제교류서비스협회) | 福岡県 (후쿠오카) | 福岡県海外協会 (福岡県해외협회) |

* 청년지도자 B 그룹에는, 단장, 부단장, 간사가 포함된다.

(3) 초청청년 내역

| 분야명 | 남 | 여 | 계 |
|---------|----|----|-----|
| 근로청년 | 27 | 8 | 35 |
| 농촌청년 | 13 | 12 | 25 |
| 청년지도자 A | 17 | 3 | 20 |
| 청년지도자 B | 19 | 1 | 20 |
| 총계 | 76 | 24 | 100 |

(4) 실시일정

① 근로청년반

| | | 프 로 그 램 내 용 | |
|--------|---|---------------------------------|-------|
| | | 오 전 | |
| 11월 8일 | 일 | | |
| 9일 | 월 | 본계획의 브리핑 | 환영회 |
| 10일 | 화 | 강의 「일본의 사회와 풍토」 | |
| 11일 | 수 | 전기통신과학관 견학 | |
| 12일 | 목 | 강의 「일본의 산업사」 | |
| 13일 | 금 | 강의 「일본과 한국」 | |
| 14일 | 토 | 오리엔테이션 | 환영오찬회 |
| 15일 | 일 | 현내 근로청년및 청소년 활동가와의 교환회 | 개회식 |
| 16일 | 월 | 자주연수 | |
| 17일 | 화 | 東芝(토시바)과학관 견학 | |
| 18일 | 수 | 神奈川현 공업시험장, 기술정보센터 견학 | |
| 19일 | 목 | 富士(후지)전기종합연구소 방문 | |
| 20일 | 목 | 홈스테이 준비 | |
| 21일 | 토 | 홈스테이 | |
| 22일 | 일 | 홈스테이 | |
| 23일 | 월 | 東京(토쿄)로 이동 | |
| 24일 | 화 | 經濟團體聯合會 방문 | |
| 25일 | 수 | 荒川(아라카와)區長 예방 | |
| 26일 | 목 | 일본통운본사 방문 | |
| 27일 | 금 | 노동성 예방 | |
| 28일 | 토 | 山中湖(아마나카호수)로 이동 | |
| 29일 | 일 | 스포츠교류, 새미나 | |
| 30일 | 월 | 箱根(하코네) 소여행 | |
| 12월 1일 | 화 | 広島(히로시마)로 이동 | |
| 2일 | 수 | 宮島(미야지마) 견학 | |
| 3일 | 목 | 奈良견학(奈良국립박물관, 東大寺:토오다이지) | |
| 4일 | 금 | 京都(교토)로 이동, 京都 견학(西陣織:니시진오리 회관) | |
| 5일 | 토 | 귀국준비 | |
| 6일 | 일 | 귀국준비 | |
| 7일 | 월 | 평가회, 귀국에 관한 설명, 세수속 | |
| 8일 | 화 | 귀국 | |

| 프 로 그 램 내 용 | 실시장소 |
|--|-------|
| 오 후 | |
| 일본도착 | 東 京 |
| 생활가이던스 일본어회화(Ⅰ) | " |
| 강의 「일본의 역사와 문화」 | " |
| 국립과학박물관, 선사인전망대 견학 | " |
| 강의 「일본의 경제」 무도감상및 교환회 | " |
| 일본어회화(Ⅱ) 대사관 브리핑 | " |
| 横浜(요코하마)로 이동 | 神 奈 川 |
| 분과회토의 교환회 시내산책 | " |
| 神奈川(가나가와)현청방문 환영리셉션 | " |
| 川崎(가와사키)시 방문 川崎(가와사키) 중소기업단지 견학 | " |
| 味の素(아지노모토) 川崎공장 견학, 神之木台(카미노키나이) 청소년회관 방문 | " |
| 자주연수 | " |
| 홈스테이 오리엔테이션 | " |
| 환송파야티 | " |
| 도내견학(토쿄타워, 浅草:아사쿠사) | 東 京 |
| 王子(오오지) 고등직업훈련교 방문 | " |
| 반별구내 시찰, 荒川구 주최 간담회 | " |
| 일본통운 중앙유통센터 견학 | " |
| 자주연수 | " |
| 합숙세미나 오리엔테이션 만찬회 게임대회 | 山 梨 |
| 기조강연, 반별토론, 스포츠교류 | " |
| 東京(토쿄) 로 이동 | 東 京 |
| 広島견학(평화기념공원) | 廣 島 |
| 奈良(나라)로 이동 | 奈 良 |
| 奈良견학(法隆寺:호오류지) | " |
| 京都 견학(清水寺:키요미즈테라) 東京(토쿄) 로 이동 | 京 都 |
| | 東 京 |
| | " |
| 외무대신 예방 환송회 | " |
| | " |

② 농촌청년반

| | | 프 로 그 램 내 용 |
|---------|---|---|
| | | 오 진 |
| 11월 8 일 | 일 | |
| 9 일 | 월 | 본계획의 브리핑 환영회 |
| 10일 | 화 | 강의 「일본의 사회와 풍토」 |
| 11일 | 수 | 전기통신과학관 견학 |
| 12일 | 목 | 강의 「일본의 산업사」 |
| 13일 | 금 | 강의 「일본과 한국」 |
| 14일 | 토 | 농림수산성 방문, 中靑連임원과의 오찬회 |
| 15일 | 일 | 勝沼(카츠누마)로 이동 만스 와인 카츠누마공장 견학 |
| 16일 | 월 | 기조강연 전체토의 I |
| 17일 | 화 | 분과회토의(2) |
| 18일 | 수 | 패회식 이동(청소년센터→相模湖:사가미호수→호텔) |
| 19일 | 목 | 久保田(쿠보타)철공 筑波(츠쿠바)공장 견학 |
| 20일 | 금 | 茨城(이바라키)현 원예시험장 견학 |
| 21일 | 토 | 靑森(아오모리)로 이동 |
| 22일 | 일 | 자주연수 |
| 23일 | 월 | 현운영淺虫(아사무시)수족관 견학 |
| 24일 | 화 | 靑森현 지사 예방, 현개요설명 |
| 25일 | 수 | 현 사과쥬스 공장 견학 현 농업대학교 방문 |
| 26일 | 목 | 東北(토오호쿠)町 참마 생산농가 방문, 야채 집송센터 견학 |
| 26일 | 금 | 六戸(로쿠노헤)町농협 농산물처리 가공센터 견학 |
| 28일 | 토 | 홈스테이 |
| 29일 | 일 | 홈스테이 |
| 30일 | 월 | 広島(히로시마)로 이동 |
| 12월 1 일 | 화 | 宮島(미야지마) 嚴島神社(이즈쿠시마 진자) 弥山(미센)로프웨이 |
| 2 일 | 수 | 京都(쿄토)로 이동 |
| 3 일 | 목 | 奈良(나라)견학 (東大寺:토다이지) |
| 4 일 | 금 | 東京로 이동 |
| 5 일 | 토 | 귀국준비 |
| 6 일 | 일 | 귀국준비 |
| 7 일 | 월 | 평가회, 귀국에 관한 설명, 재수속 |
| 8 일 | 화 | 귀국 |

| 프 로 그 램 내 용 | 실시장소 |
|--|-------------------------|
| 오 후 | |
| 일본도착 | 東 京 |
| 생활가이던스 일본어회화(1) | " |
| 강의「일본의 역사와 문화」 | " |
| 국립과학박물관, 선사인 전망대 견학 | " |
| 강의「일본의 경제」, 무도감상및 교환회 | " |
| 일본어회화(II), 대사관 브리핑 | " |
| 합숙세미나 개최식, 오리엔테이션 | 자주연수 ※일본측청년 사전 연수 |
| 이동<勝沼→청소년센타>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 山 梨 |
| 분과회토의(1) 교류의 밤 | " |
| 분과회토의(3) 전체토의II | " |
| 농림수산성 기술회의 사무국 筑波 국제농업연수센터 방문 | 茨 城 |
| 佐倉(사쿠라)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견학 | 東 京 |
| 오리엔테이션 | 青 森 |
| 板柳(이타야나기)町 농협농산물공진회 견학, 청소년단체대표자와 교류 | " |
| 아스카(관광물산관) 견학및 향토민예품 제작 실습 | " |
| 현농업관계자와 의견교환, 환영리셉션 | " |
| 浪岡(나미오까)町 농협방문 | 크래프트 姉さん(아네사마)인형 제작 실습 |
| 東北 계단 下田(시모다) 농장 견학 | 上十三(가미쥬산) 지구 청년과 레크리에이션 |
| 대면식, 홈스테이 | " |
| 홈스테이 가족과의 환송파아터 | " |
| 広島 견학 (평화기념공원, 원폭자료관) | 広 島 |
| 京都견학(金閣寺:킨카쿠지 西陣織:니시진오리 회관, 二条城:니조오조, 清水寺:키요미즈테라 | 京 都 |
| 奈良 견학 (法隆寺:호오류지) | " |
| 자주연수 | 東 京 |
| 외무대신 에방 | " |
| 환송회 | " |
| | " |
| | " |

③청년지도자 A반

| | | 프 로 그 램 내 용 |
|---------|---|--|
| | | 오 전 |
| 11월 8 일 | 일 | |
| 9 일 | 월 | 본계획의 그리핑 환영회 |
| 10일 | 화 | 강의 「일본의 사회와 풍토」 |
| 11일 | 수 | 전기통신과학관 견학 |
| 12일 | 목 | 강의 「일본의 산업사」 |
| 13일 | 금 | 강의 「일본과 한국」 |
| 14일 | 토 | 代々木(요요기)올림픽센터 방문, 中靑連임원과의 오찬회 |
| 15일 | 일 | 箱根(하코네)로 이동 (大桶谷:오오와키다니, 조각의숲 미술관 견학) |
| 16일 | 월 | 기조제안(한국/일본대표) 전채토의 I |
| 17일 | 화 | 분과회토의(2) |
| 18일 | 수 | 전채토의II 폐회식 東京(토쿄)로 이동(富士箱根:후지하코네 렌드→ |
| 19일 | 목 | 佐倉(사쿠라)국립역사민속 박물관 견학 |
| 20일 | 금 | 筑波대학 방문(시설견학및 교수·학생과 교류) |
| 21일 | 토 | 宇都宮(우츠노미야)로 이동 |
| 22일 | 일 | 홈스테이 오리엔테이션 홈스테이 |
| 23일 | 월 | 홈스테이 |
| 24일 | 화 | 홈스테이 가정으로부터 집합, 日産(닛산)자동차 栃木(토치키)공장 견학 |
| 25일 | 수 | 栃木현 지사 예방 현 사회교육담당자와 의견교환 |
| 26일 | 목 | 作新(사쿠신)학원 방문(수업참관및 교사와 의견교환) |
| 27일 | 금 | 那須(나쓰)로 이동 국립那須 甲子(코오시)소년자연의 집 방문 |
| 28일 | 토 | 日光견학 |
| 29일 | 일 | 宇都宮시 삼림공원 산책(현지 청년과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
| 30일 | 월 | 京都(쿄토)로 이동 |
| 12월 1 일 | 화 | 奈良(나라)견학(奈良 국립박물관, 東大寺:토다이지) |
| 2 일 | 수 | 京都견학(二条城:니조오조, 西陣織:니시진오리 회관) |
| 3 일 | 목 | 広島견학(평화기념공원, 원폭자료관) |
| 4 일 | 금 | 東京로 이동 |
| 5 일 | 토 | 귀국준비 |
| 6 일 | 일 | 귀국준비 |
| 7 일 | 월 | 평가회, 귀국에 관한 설명, 제수숙 |
| 8 일 | 화 | 귀국 |

| 프 로 그 램 내 용 | 실시장소 |
|---|------|
| 오 후 | |
| 일본도착 | 東 京 |
| 생활가이던스 일본어 회화(Ⅰ) | " |
| 강의 「일본의 역사와 문화」 | " |
| 국립과학박물관, 선사인 전망대 견학 | " |
| 강의 「일본의 경제」, 무도감상및 교환회 | " |
| 일본어회화(Ⅱ), 대사관 브리핑 | " |
| 개회식 오리엔테이션 자주연수 | " |
|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 静 岡 |
| 분과회토의(1) 교류의 밤 | " |
| 분과회토의(3) 스포츠대회 | " |
| 十国峠:슈코쿠토게→일본청년관 | 東 京 |
| 筑波(츠클라)연구학원도시 견학 | 茨 城 |
| 국립공해연구소 견학 | " |
| 오리엔테이션 현 청년회관 시설견학및 관계자와간담, 환영리셉션 | 栃 木 |
| | " |
| | " |
| 烏山(카라스야마)和紙館 견학·실습 | " |
| 下野(시모즈케)신문 견학 | " |
| 현립박물관 견학 宇都宮(우츠노미야)시 근로청소년홈 방문 | " |
| 日光(닛코)로 이동 | " |
| 청년 단체와의 간담회 | " |
| 환송파티 | " |
| 京都견학 (金閣寺:킨카쿠지) | 京 都 |
| 奈良견학 (法隆寺:호오류지) | " |
| 広島(히로시마)로 이동 | 広 島 |
| 宮島(미야지마)견학, 嚴島神社(이즈쿠시마 진자) 宮島수족관 | " |
| | 東 京 |
| | " |
| | " |
| 외무대신 예방 환송회 | " |

④ 청년지도자 B반

| | | 프 로 그 램 내 용 |
|---------|---|-----------------------------------|
| | | 오 전 |
| 11월 8 일 | 일 | |
| 9 일 | 월 | 본계획의 브리핑 환영회 |
| 10일 | 화 | 강의 「일본의 사회와 풍토」 |
| 11일 | 수 | 전기통신과학관 견학 |
| 12일 | 목 | 강의 「일본의 산업사」 |
| 13일 | 금 | 강의 「일본과 한국」 |
| 14일 | 토 | 오리엔테이션 |
| 15일 | 일 | 日光(닛코)견학 |
| 16일 | 월 | 문부성 방문및 강의 「일본의 청소년 교육」 |
| 17일 | 화 | 千代田(치요다)구립 永田(나가다)町 국민학교 방문 |
| 18일 | 수 | 筑波(츠클라)연구학원도시 방문(筑波주택도시 정비공단) |
| 19일 | 목 | 도립広尾(히로오)고등학교 방문 |
| 20일 | 금 | 청소년갱생시설 방문 (多摩:타마 소년원) |
| 21일 | 토 | 箱根견학 |
| 22일 | 일 | 기조강연 |
| 23일 | 월 | 富士山五合目(후지산고고오메) 등산(비스) |
| 24일 | 화 | 福岡(후쿠오카)로 이동 |
| 25일 | 수 | 東陶機器(토오토오기키) 견학 |
| 26일 | 목 | 산업의과대학 견학 |
| 27일 | 금 | 福岡로 이동 |
| 28일 | 토 | 홈스테이 |
| 29일 | 일 | 홈스테이 |
| 30일 | 월 | 広島(히로시마)로 이동 |
| 12월 1 일 | 화 | 広島견학(평화기념관, 원폭자료관) |
| 2 일 | 수 | 京都(쿄토)로 이동 |
| 3 일 | 목 | 奈良(나라)견학 (春日大社:카스가 다이샤, 東大寺:토다이지) |
| 4 일 | 금 | 京都견학 (고대 友禪苑:유젠엔 清水寺:키요미즈테라) |
| 5 일 | 토 | 귀국준비 |
| 6 일 | 일 | 귀국준비 |
| 7 일 | 월 | 평가회, 귀국에 관한 설명, 재수숙 |
| 8 일 | 화 | 귀국 |

2. 초청 청년 감상문

진실한 우정을 위한 30일

근로청년반

李賢熙 (이 현희)

초행길!

그러기에 긴장과 기대와 호기심이 더 감돌았던 게 아닌가.

시간을 잊고 장소를 잊고 세상을 잊고
젖어서

서로의 가슴으로 마냥 취하고 싶었다. 울타리도 칸막이도 경계도 없어...

사랑과 증오의 나라, 경제대국 일본, 일본에 대한 별 지식이 없었기에 때문지 않은 신선함으로 많은 것을 느껴보리라 생각하며 대한의 상공을 비상한지 30여일

“일본의 살아있는 모든 것을 알아보고 느껴보고 배우자” 이런 생각은 동행한 일행 모두의 마음이었으리라.

파업 오늘의 일본을 있게 한 혼은 무엇인가? 사회·문화·산업사 및 경제·정치에 관한 전반적인 강의위주의 첫 일주일, 재래기술과 서양기술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완전한 자기창출, 개인이 앞서 조직을 우선하는, 내가 아닌 국가가 먼저라는 사고가 오늘의 경제일본을 만든게 아닌가 싶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수직적 사고와 일본의 수평적 사고, 즉 우리의 역사를 중시하는 점과 일본의 현재 미래를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상도 마음속에 그려본다.

동양의 철학인 조화와, 서로를 존중하는 윤리를 잊지 않으면서 말이다. 조금씩 느껴가는 일본을 더 깊이있게 체험해 본 두세계 주 일본 청년들과의 교류 교환회, 민박등은 보통사람들의 사고와 생활방식을 이해하는 의미깊은 시간사간

이었다. 청년들과의 만남에선 직장내의 근로조건, 여가, 복지제도, 정책적인 지원의 만족도등 다양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불만의 표출을 여가선용으로 해소·해결하려는 긍정적인 이해와 높은 경제식전등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생각케 하는 좋은 점이였다. 이 기간동안 있던 기업체 방문은 실질적인 의견교환보다는 많은 업체를 보기위한 일정이어서 의미를 부여하기엔 미흡했다. 차라리 며칠간을 한 회사에 근무해보는 방법은 어떠했을까?

마지막 일정인 유적지등의 관광은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은 푸르름과 외국의 침략이거의 없었음에 사적의 보존이 잘되어 있다는 점은 참으로 부러웠다. 옛 조상들로부터 외국문물을 그대로 전래받지 않고 새로운 자기창조에 애쓴 점은 오늘의 일본정신의 원형을 보는 것 같아 인상깊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잦은 일정의 변경, 형식 위주로 인한 시간의 지연, 한국대표단이란 말을 앞세우면서도 공공기관의 대표자 표경에 대표자가 불참하는 무성의, 태극기 개양시의 잘못된 등 긍정적이라 애쓰는 우리의 시각을 흐려놓았다.

어제 정리를 하면서 한·일의 진정한 우정을 위해 감히 제언한다면, 외적인 양국간의 교류에 힘쓰기에 앞서 일본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개인식,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레가 되겠지만 원폭피해의 아픈 상흔 広島平和公園(히로시마 평화공원), 한명의 소녀의 아픔을 기릴줄 아는 일본인이 자국의 이해관계로 이국에서 처참하게 사라져 간 2만여 한국인의 아픔을 다리건너편 구석으로 내팽개친 현실앞에서 진정한 우정을 논한다면 아이러니가 아닐까?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를 느끼는 참된 우정의 꽃은 무엇이 밀거름이어야 하는지 정확

하길 좋아하는 일본의 사고로 제조명, 재인식했으면 한다.

끝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한 JICA 및 관계하신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리면서 이 글을 맺는다.

너와 나를 허물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힘찬 새 출발을 기대하면서...

대한민국청년 일본방문단

근로청년반

金 鎮淑 (김 진숙)

훈훈한 기온이 느껴지는 계절에 成田(나리따) 공항에 내려 이제는 옷 속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움을 느낀다.

처음으로 해외에 나간다는 설레임과 한편으로는 한달 동안 회사를 비워야 되는 부담감을 안고 비행기 트랩을 올랐었다.

벌써 30일이 지났다!

돌이켜보니 절보다 양에 치우친 너무도 바쁜 일정들의 연속.

11월 8일 2시 20분 일본 成田(나리따) 공항을 빠져 나오는 버스 속에서 보는 창 밖의 이곳 거리 풍경은 오직 간판 문자만이 다를 뿐 크게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다.

·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약간은 이국적인 인상을 받고 싶었는데...

그러나 이제 한달이란 기간을 보내고 난 느낌은 양국간에 허물어아만 하는 장벽이 너무 두터운다는 것을 느낄 수 밖에 없음이 애석하다.

우선 이들간에 깊숙히 내재해 있는 우월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견학 방문지 선정, 平和公園(평화공원) 밖에 있는 韓人原爆犠牲者慰靈碑(한국인 위령탑)등을 볼때 두 나라가 양국 관계 개선을 구호로 외치던데하더라도 구체적인 개선 없이는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없음을 히로시마 평화 공원에 갔을

때 절실히 느꼈다.

우리의 문제는 한국 땅에 있는 한국사람과 일본 땅에 있는 일본 사람과의 우호 문제가 아니라 일본땅에 있는 한국인과 일본인과의 문제였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

이러한 우리 청년들의 생각을 일본의 청년들에게 전하기에는 너무도 짧은 이번 프로그램의 일정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인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2박 3일의 민박 일정에서는 겸소하고 개인적이며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책임성이 강한 국민성의 일본인을 볼 수 있어 좋았었다.

이제 고국으로, 대한조국의 품으로 돌아 갈 날을 이틀 남기고 그동안의 일정들을 정리해보니 너무도 많은 계획을 한꺼번에 수용하여 좀더 자세히 서로를 알 수 없었던 점이 안타깝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런 기회가 많아질수록 또 서로가 좀더 깊이 있는 대화를 가질수록 양국의 단계는 개선 될 것이며 양국의 젊은이들은 분명코 21세기의 주역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번 계획에 협조하여 주신 JICA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주)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대하여

1946년, 広島県(히로시마현) 관계자들과 학식과 전문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広島市平和記念施設運営協議会(히로시마시 평화기념 시설 운영협의회)가 설치되어, 平和公園(평화공원)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평화공원이라는 성지이기도 하면서, 관광시설이기도 한 특수성을 가진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서였다. 공원 부지가 한정되어있다는 조건 아래에 공원내의 기념비나 위령비의 설치는 갈 수록 늘어가고 있어, 1967년의 공원내 시계탑 건설에 관한 심의시, 이후 공원내에는 기념비나 위령비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이후 이러한 방침에 의해 공원내에는 어떠한 공사도 일절 허가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그 후의 기념비나 위령비의 설치는 공원 주위의 하천 녹지대에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1967년 이후 공원내에 세워진 기념비나 위령비는 그 이전에 허가신청이 인정된 것에 한하고 있다.

韓人原爆犠牲者慰靈碑(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는 1970년 4월 10일, 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団 広島県本部(재일본 대한민국 기류민단 히로시마현

본부)에 의해 건설되었다. 당초 공원내의 설치를 희망하였으나, 広島市平和記念施設運営協議會(히로시마시 평화기념시설 운영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공원내의 건설이 불가능하게 되어 조선왕조 최후의 왕세자 李 垠殿下(이 은 전하)의 조카인, 당시 騎兵第五連隊(기병 제 5연대)에 소속되어 있던 李 鐵公殿下(이 우공 전하)가 피복, 발견되었던 相生橋(아이오이교) 근처의 本川橋(홍가와교) 서쪽 하천녹지대에 건설되었다.

향수병

근로청년반

金 亮起 (김 양기)

마치 수학여행을 앞둔 어린이 처럼 들뜬 가슴과 호기심으로, 가 본 적도 없었던 일본의 모습을 그리느라 잠을 설쳐버린 몇날들을 뒤로 한 채 일본에 도착했다.

처음 일주일간 지루하던 강의와 설탕으로 범벅되어진 듯한 음식은 지독한 향수병으로 우리를 몰고가며, 한달 동안의 일본여행을 무척이나 고생스럽게 느껴지도록 하였다.

또한 그 일주일 동안 강의를 끝난 시간엔 한 곳이라도 더 다녀 보리라는 욕심으로 밤만되면 삼삼오오 짝을 지어 銀座(긴자), 新宿(신쥬꾸), 上野(우에노)등 지를 마치 꼬베풀린 망야지처럼 구석구석 쏘다니며 일본의 걸모습을 활기에 분주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면서 어찌면 나쁜점만 골라서 머리속에 집어 넣던 시간들 인지도 모르겠다.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빌딩숲은 간판만 일본어 일뿐 서울의 어느 한 부분과 흡사하다고 생각하였고, 다르다면 길거리에 너저분하게 비려진 담배꽂초나 휴지가 많다는 점과 전철속이나 길거리에서 만나는 표정없는 얼굴들의 행진, 공중전화박스에 붙은 부끄러운 광고물등이 있다. 특히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슈퍼마켓이나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뜨거운(?) 잡지들과 그 책을 서슴없이 펼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볼때 교사

였던 나는 일본에서 더 이상 배울것이 없다고 단정짓기에 충분하였다. 이찌면 이때는 일본의 경제적 부까지도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더 더욱 향수병은 심해가기만 하여, 평소에 쓰지않던 편지쓰기에 열중하였고, 수없이 전화통에 배달러 목소리만이라도 고국 땅으로 열심히들 보냈었다.

그러면서 어찌면 우리는 점차 일본생활에 익숙해 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드디이 일본각지의 여행과 견학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바쁜 일정에 매달려 작은 불편에 무디어 가기 시작했으며, 일본의 풍물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더우기 일본인의 친절은 향수병을 치료하는데 좋은 약이 되었다. 한번은 전철역에서 어느 여학생에게 길을 물은 적이 있었다. 차표를 시는 방법부터 타는 곳까지 안내한 뒤, 우리가 무사히 전철을 타고 떠날 때까지 기다리며, 손을 흔들어 주던, 그 여학생의 친절은 우리에게 따뜻한 정을 가슴깊이 심어 주었으며, 아마 영원히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장이나 연구소등지를 방문하며 과연 오늘의 경제대국인 일본을 일으킨 원동력이 무엇인지 찾기에 부심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찾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3대째 가업을 이어받고 충실하게 일하는 확고한 직업의식과, 한가지 방면에서 최고의 상품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일본인의 사명의식과, 그리고 하루종일 시장중간에 서서 시장안내를 하면서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피로해하거나 귀찮아 하지 않는 시장안내양의 투철한 책임감이 바로 오늘의 일본을 일으킨 원동력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으며, 우리는 배웠다. 그러는 동안 점차 우리가 띄우는 편지횟수도 뜸해지고 전화통 근처도 한산해져감을 보며, 향수병이 점차 치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또 걱정했던

Home stay가 시작되었다. 나는 농촌 二宮(니노미야)으로 갔기에, 2박3일 동안 일본의 전통 가정과 생활습관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지면이 적어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다른 모습을 나는 보았다. 한 가족처럼 포근하게 대해주며 따뜻한 정을 뽐뿌 쏟아주시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한 가지라도 더 보여 주겠노라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설명해주시던 그리고 언어의 한계 때문에 저질러진 작은 실수를 차라리 추억거리로 승화시켜주시던 柳川(야나가와)씨 내외분의 세심한 배려로 나는 마치 고향에 온 듯한 착각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헤어질 때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우리의 우정을 눈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소박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어떻게 과거의 불편한 역사를 만들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였다. 하여튼 나는 새로운 향수병을 안고 다시 우리의 일정에 합류하여야만 하였다.

그리고 나는 불편했던 역사적 매듭을 풀고저, 그리고 21세기를 향한 우리들의 우정을 위하여 富士青少年(후지청소년)센터에서 이틀밤을 꼬박 세우며 일본인과 토론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발전할 수 있었다. 불편한 역사적 관계를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진정으로 우정을 바라는 일본인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또 우리 모두가 우정을 위하여 노력 하자고 진정으로 전배를 들었다.

일본을 떠나기 사흘전 Home stay 가족으로부터 밀감따기(미감가리)에 초대를 받고 다시 방문하였다. 그날 밀감축제에는 아시아의 10개국(한국, 일본, 중국, 태만,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리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모든 젊은이들은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평화와 우정을 너

욱 크게 약속하며, 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제 지난 한달을 돌아켜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게 해준 中曾根(나카소네) 전 일본 수상과 일본 정부 그리고 우리를 열심히 보살펴준 JICA 관계자 여러분과 그동안 일본생활에서 저를 아껴주셨던 모든 일본인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그동안 사귀었던 일본친구들에 대한 새로운 향수병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
감사합니다,

친구가 되어야 하는것

농촌청년반

宋 應俊 (송 응준)

누구보다도 젊은 혈기를 갖고 있는 우리의 조적은 서로가 다른 지방에서 모인 집합체라 단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인원이 농업을 체험하고 있고 젊다는 이유와 새마을 청소년회의 이념때문에 빠른 속도로 가까워 질수가 있었다. 긴 여행시간에도 버스안에는 노래의 함창이 울려 퍼졌고 농담도 주고 받으며 제각기 유행어를 창출 하기도 했다. “자동커펀” “푸마” “담보”등의 은어가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기 자기의 개성이 동료에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한 집합체는 일본청년들과의 교류회로 연장이 되어 흥겨운 시간과 아쉬운 시간으로 구별 할 수가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향한 우정국으로서의 안타까운 것은 서로 상대국어를 몰라 대화하는데 뜻은 같이 하고 있어도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팀은 합숙세미나, 교류회등 많은 모임이 있었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 영어가 혹사 당하기도 했으며 이런 기회가 서로의 나라를 알고자 하면 제일 필요한 것은 언어라고 재확인한 기회였다. 특히 누구나

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일본의 젊은이들은 나와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는데 대해 감명을 받았다. 세계 5대양 6대주에는 각양각색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등 아시아 국가에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관계로 협력하며 미래를 건설하자는 굳은 신념에 찬 결의였다. 이러한 관계로 시간을 단축 시킬려면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충고도 있었다.

끝으로 일본에서 느낀 견해를 개인적으로 말하고자 한다.

첫째는 일본사람들의 정직성과 질서였다. 엉터리 물건을 팔거나 사지않는 게 통례로 되어 있고 아무리 바빠도 자동차 크랙션 소리가 나지 않고 교통위반하는 사람이 없었다.

둘째는 친절과 봉사정신이다. 물론 한국의 친절함과 봉사정신도 세계에 내놓아서 뒤떨어지지 않겠지만 남의 것이 약간 아름답게 보였다.

셋째로 협동정신은 우리나라가 앞서 있었다. 배우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의 전통양식을 최대한 살리고 노력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기회였다.

서로의 마음을 비우고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자기의 주장을 밝히며 대화하고 사귀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21세기의 진정한 국가의 주인공으로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배고픈 맹수가 먹이를 찾아 많이 돌아 다니듯 우리 농촌의 젊은이수여 중단없는 전진과 미래를 향해 투쟁하자.

감사합니다.

반지 하나와의 약속

농촌 청년반

金順男(김순남)

어느새 보름이 가까운 11월 21일! 우린 토요일에서 아오모리라는 곳으로 이동되는 날이었

다. 그곳은 토요일보다 날씨보다 기온이 낮은 곳이란 말은 들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더 추운 날씨였던 것 같다. 그러나 靑森(아오모리)역에는 눈에 익은 양국의 국기를 들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라고 어색하게 쓴 글씨의 팻말과 함께 100개의 종이학을 접어 엮은 종이학 목걸이를 일일이 걸어주며 반겨주던 일본청년들의 따뜻한 친절로 그렇게 춥지만은 않은 겨울이었다. 특히 저녁 오리엔테이션이 있기전 따뜻한 고구마를 삶아와 허전한 배를 채워주고 삶은 계란에다 스물다섯명의 이름을 적어서 건네주며 일일이 격려해주던 기쁘쳐상의 따사로움은 이미 낯설지 않은 우리의 친구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淺虫(아사무시) 수족관" "사과쥬스 공장" "참마생산 농가"등 많은 곳을 견학해 왔지만 그래도 2박3일간의 홈스테이 기간은 나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 언어와 방식이 다른지라 마음의 부담과 걱정을 한것은 사실이었지만 어색한 제스처로나마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려던 그 순간만큼만은 구별될 수 없는 우정의 교환이 아닐 수 없었다. 소중하게 보관한 기모노목을 정성껏 입혀주며 우리의 한복을 입고서 환호성을 올리던 우리의 만남은 이젠 그리 멀지않은 가까운 이웃이 된 무언의 약속, 그것이였다. 이른 새벽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해주신 그곳 靑森(아오모리) 어머니의 정성스런 오후밤은 그리운 고향 어머니의 사랑이기도 했다. 유난히도 많은 눈이 내리던 날! 2박3일간의 아쉬운 작별에 하얀 눈은 가는 길을 막는 것 같았다. 언제나 잊지말고 다시 만나길 약속 하자시면서 손가락에 끼워 주시던 예쁜 반지 하나와의 약속이 오늘처럼 눈나리는 날이면 더욱 그리우리라.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내가 얻은 아니 우리 모두가 얻은 "친절과 약속"의 의미는 좀더 많은 맘으로 영글어 나의조국 Korea에 내려지리라.

그리운 K 형에게

청년지도자 A 반
尹景泰 (윤경태)

K 형, 안녕하십니까?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 K 형과 부산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때가 엇그제 같은 데 벌써 일본에서의 한달생활을 거의 마치고 귀국할 체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달동안의 일정을 가치있게 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리라는 다짐을 했읍니다만 이국땅의 향취와 빈틈없이 짜여진 일정에 의해 생활하다보니,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지금, 무엇보다도 자신의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이런 귀한 기회를 충실하게 보내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아쉽게 여지없읍니다. 하지만 어제라도 차분히 정리를 해서 일본에서의 경험을 계기로 보다 넓은 세계로 시야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지요.

K 형! 우리나라 속담에 '서울에 가보지 못한 사람이 서울을 더 잘 안다'라는 말이 있지요. 직접 경험하지도 않고 들은대로,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견주어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읍니다. 일본에 오기 전에 일본인의 의식구조, 생활환경, 정치경제등 일본에 대한 대화를 수없이 나누었읍니다. 그러나 정작 한달 동안, 오리엔테이션 기간의 강의, 3박 4일 동안의 민박, 일본의 주요 문화, 산업 시설견학, 관광등을 통해서 일본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 본 지금 가슴은 느낌으로 가득차 있으나, 정작 표현할 방법이 없읍니다.

K 형! 특히 일본 中央青少年団体連絡協議會(중앙 청소년 연합협의회) 청년들과의 합숙세미나는 저의 가슴속에 좋은 추억으로 간직될 것입니다. 진정 국가와 국가간의 장벽을 허무는 것은 정치체도와 헌정이 아니라, 서로의 가슴을 열어놓은 인간과 인간의 진솔된 만남이라는 것을

절실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합숙세미나는 그동안 일본인에 대한 선입견과 한일간의 역사적 갈등 때문에 가슴 한편에 긴장감은 잔뜩 품은 채 도사리고 있던 우리 일행을 그러한 양금으로부터 해방시켜주었읍니다. 합숙세미나에서는 양국의 문화, 교육, 청소년 단체 활동, 한일문제등의 주제로 4 분과로 나누어서 이틀에 걸쳐서 토론을 하였읍니다. 저는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토론분과에 포함되어서 양국의 청소년 문제와 단체 활동 현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읍니다, 특히 소비지향의 문화나 의식구조에 있어서 일본의 모방성이 짙은 우리로서는 일본의 청소년 문제와 그 치유과정에 대해서 관심있게 들었읍니다. 제가 우리분과의 서기였기 때문에 전체토의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일본측의 서기인 E 부인, 조장과 함께 새벽 4 시까지 5 시간에 걸쳐 공동요약문을 작성하였는 데 지금도 가슴등직한 추억으로 남아있읍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과 체육을 통해서 서로 몸으로 부대끼고 땀을 흘리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좋았읍니다. 가장 훌륭한 만국어는 Body Language 라는 것도 확인하였읍니다. 물론 평소에 회화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였읍니다만.

일본에서의 가장 깊은 추억은 栃木県(토치기켄)에서의 민박이 될 것입니다. 청년회관에서 민박할 집의 주인인 N 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2박3일의 과정이 막연해서 걱정이 되었읍니다. 하지만 곧 그분의 친절하고 자상한 배려로 부모이상의 정을 느끼게 되었읍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정표를 보시고는 우리가 견학이나 관광을 하지않는 곳 중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을 선택하셔서 보여주었읍니다. 그중 尻尾(아시오)라는 일본최대의 광산지였던 장소와 2차세계대전시 사망한 일본인과 외국인들을 추모하면서 평화를 기원하는 平和観音像(평화관음상)을 볼 수 있었던 것도 큰 행운이었읍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국어를 배우는 모임

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저녁에는 한글을 배우는 회원 4명과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는데 야채장사를 하는 Y씨의 소탈하고 허물없는 분위기에 같이 간 동료와 저는 손짓, 발짓, 영어, 일본어, 한국어, 한자 등을 총동원해서,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사진을 찾으면서까지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세삼 한국인과 일본인의 유머감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리가 무르익으면서 일본의 사계의 노래와 한국 정통민요 진도아리랑을 합창할 때에는 모두 신명이 나서 어깨를 걸고 춤을 추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인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과거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사실과 오늘날에도 일본에 민족차별의 잔재가 도처에 남아있는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해 하였습니다. 栃木県(토치기켄)을 떠나던 날, 부인께서 따님과 함께 역까지 전송을 나왔습니다.

그분의 자그마한 손을 잡고 이별의 인사를 할 때에는 눈시울이 뜨거워져움을 느끼고 얼른 고개를 돌려서 기차를 났습니다. 지금도 민박할 때의 생각을 하면서 슬며시 혼자 웃곤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K형! 지난 한달을 마무리 할려고 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한국에 있어서 일본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라는 원초적인 의문이 생겨납니다. 여기에서 놀란 것은 일본인의 대다수가 특히 젊을수록 과거의 역사에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만날때, 우리는 나름의 벽을 가지고 있었던 데에 반해, 일본청년들이 너무나 열려진 마음으로 우리를 맞이했기 때문에 한편 당황하였으나, 그로 인해 일본에 대한 우리들의 단허진 마음을 조금씩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K형! 일본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중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도면에 있어서는 매우 진보적이며 민주적이거나, 사회구조나 의식의 밑바탕에는 기본적으로

보수성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지만 또 한편 적지 않은 사람이 과거의 군국주의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같았습니다. 특히 거리에서 거의 매일 집회를 갖는 신 보수주의적 성향을 가진 정당의 포스터나 현수막을 보면 가슴이 심췌함을 느낍니다. 대다수의 일본인은 선량하지만 극히 일부 정치 엘리트의 신 보수화 경향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국 젊은 지식인들의 깊이있는 만남으로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또 하나 느낀것은 일본인들은 사고가 상당히 현실적이라는 점입니다. 어떠한 문물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자기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거기에서 연유한다고 봅니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이기때문에 어떠한 토론을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인정합니다. 이런점을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물론 내년에 한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한국에서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입니다. 생각보다 한국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정확한 시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대통령을 선택하는 이 중대한 역사의 전환점에서 K형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저도 빨리 돌아가 소중한 한 표를 사용해야겠죠.

K형 일본에서 만난 소중한 고마운 벗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일행은 회지를 통해서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한달동안의 만남에 살을 보태어 더욱 이해를 깊이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방문을 계기로 삼의 질을 보다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K형 우리가 헤어질 때 만났던 바로 그 포장마차에서 글로 나누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를 주

고 받을 날을 기대합니다. 이야기 보따리 많이 준비해 놓으세요. 그럼 부산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87. 12

尹 景泰 (윤 경태) 드림

하꼬네의 추억

청년지도자 A반

廉 美蓮 (염 미연)

일본에 오게 되었을 때 나는 친구들이나 가까운 어른들께 많이 배우고 오라는 얘기를 듣고 부담을 느꼈다. 왜냐하면 내가 일본을 얼마나 배우고 돌아가서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JICA의 짜여진 일정은 한국에서 사전교육할 때 받아 본 것과 거의 틀림없이 진행되었고 이 글을 쓰는 지금은 일정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31일 동안 나는 여러 기관을 방문하였고 수십 명의 일본인을 만날 수 있었으며, 유명한 관광지에도 가 보았다. 이런 기회는 흔히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번 21세기를 위한 우정계획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일정표를 보면서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니 순간순간이 다 소중한 기억이지만 그 중에서도 箱根(하꼬네)랜드에서 합숙세미나를 가졌던 일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내가 소속된 청년지도자 A 팀은 일본청년 20명과 함께 4개의 주제로 분과토의를 가졌는데, 그 중에서 나는 문화의 차이를 주제로 한 팀에서 토의하였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동안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일본과 한국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발견하였다. 비슷한 점은 일본과 한국은 같은 동양의 한자 문화권이라는 것과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왔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 많았고, 다른 점은 양국의 행정체계가 중앙

집권적(한국)인 것과 지방자치적(일본)인 데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문화적 특징을 설명할 때 우리는 중앙집권적 행정체계가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려 하였지만 일본측에서 왜 '문화'가 토의주제인데 정치에기만 자꾸하느냐는 질문이 들어와서 오히려 당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본측 청년들의 얘기 가운데서도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역간의 생활방식, 사고방식의 차이가 크다는 것도 배웠다. 이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것이었다고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토의를 함께한 모든 사람이 기억에 남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람은 曜子(요꼬)상이다. 그분은 두 아이의 어머니이고 가정주부인데 그분이 살고 있는 愛媛県(에히메켄)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다. 그분이 지역을 위해 활동하는 것으로는 부인문제, 육아문제, 부모교육, 소비자운동, 도시의 고급문화 유입 등이 있는데 뜻을 같이하는 회원이 曜子(요꼬)상을 포함한 3명의 여차이고 재정도 자립해야하는 형편이라는 말을 듣고 놀랍고 존경스러웠다. 우리는 농담 밤 진담 밤으로 曜子(요꼬)상을 지방의회로 보내야 한다고 외쳐서 다 함께 박수치고 웃을 수 있었다.

나도 고향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평소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나로서는 뜻을 함께 하는 친구가 두명밖에 없다면 떠 뭇거리다가 원하는 일을 해내지 못할 것 같다.

曜子(요꼬)상은 용기있는 여성이다.

내가 일본에 와서 배운 것이 있다면 성실하게 열심히 살려는 일본 청년들의 태도이다. 曜子(요꼬)상외에도 함께 토의 기록을 정리하느라 밤을 세웠던 杉山(수기야마), 우리일행을 여러번 방문하고 선물을 잊지 않았던 野入(노이리), 大門(다이몬), 淳子(준코), 理世(미치요), 荒木(아라키) 등이 있다. 합숙세미나에 함께 참여했던 모든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지한 토의와 열띤 스포츠, 재미있는 교류회를 가졌다. 아마 나를 포

함해서 참석자 모두는 이번 경험을 친구들에게 자랑할 것 같다. 일본청년들 처럼 나도 앞으로는 지역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뛰고 싶다.

21세기의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문화교류의 참뜻

청년지도자B반

房珍珠 (방진주)

인간의 역사는 수십만년, 수백만년, 혹은 그보다 더 길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문명이 발생한 것은 불과 수천년전의 일이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의 시간은 인간의장구한 역사를 놓고 비교해 볼 때 일순간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로 짧은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몇 십만, 몇 백만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은 보다 진보 향상하여 서로간에 다툼이나 불행이 없는 이상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과 같은 혼란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상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시련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생성, 발전이란 우주 섭리에 따라 끊임없이 진보 향상하고 있으므로 그같은 견해는 일면에 있어 옳다고 하겠다.

하지만 세계 인류가 서로 합심하여 조화를 이루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보 향상해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그리고 세계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발전을 계속해 나가지만 한다면 불행도, 분쟁도 거의 없는 지구촌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결코 그렇다고 생각되지만은 않는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 나간다면 인간의 장래는 역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진보와 함께 폐해도 늘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와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시대에도 진정 바람직한 인간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길을 향해 부단히 도전하고 모색할 수 있는 뛰어난 영적인 본성이 인간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길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분적으로 보면 갖가지 방안이 나오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인간 자신이 스스로의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일이다.

인간 개개인의 지혜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한정된 지혜로 만사를 보고 생각해서는 사물의 실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으며 때로는 잘못을 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뜻에서 개인, 사회, 국가들끼리 서로 자신의 이해 득실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솔직한 자세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중지를 모아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최고의 지혜가 나올 때 거기서 최선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양국이 국가 이기주의의 차원이 아닌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정치·경제·문화 등 각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가지게 될 때 양국은 다가올 21세기에 세계사의 주역으로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한·일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교류의 목적도 이처럼 국가간의 이해와 득실을 따지기 전에 앞에서 지적한 덕목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데 있다고 믿는다.

아무쪼록 한·일 양국의 교류가 끊임없이 이어짐으로써 양국간에 친선과 우호 증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들이 일본을 새롭게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일본 정부측과 이번 프로그램을 주관한 JICA 측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호지메마시다

청년지도자B반

文炳善 (문병선)

“호지메마시다”라는 말은 일본방문을 위하여 한국에서 실시한 일본어 교육시간에 ‘호지메마시다’(처음뵙겠습니다)를 잘못하여 “호지메마시다”로 발음한 것이다. 교육장은 웃음바다가 되었으나 그 말은 애교가 있어 보였고 그 사람은 “호지메상”이란 별명이 붙어버렸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를 “호지메상”이라고 부르게되어 더욱 친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방문 기간중 기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단장이 상대방 기관장에게 “호지메마시다”라고 실수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몇일 동안이지만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하고 생각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역사, 문화, 경제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세부적으로는 다른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외모가 비슷하고 말의 순서차 같기 때문에 친근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유교사상에 따른 경로정신이라든지 성실성등은 매우 유사하였으며, 일본의 젊은 남성중에 콧수염을 기른다는지, 젊은여성이스스럼없이 담배를 피운다는지 하는 것은 한국과는 좀 다른 습관이 아닌가하고 생각되었다.

사실 한일 양국간의 관계는 긴밀하였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거북스러운 관계, 아니 불행했던관계였다. 보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한국은 일본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선린의 관계를 원하고 문화적으로 많은 것을 전수했으나 일본측은 한국인에게서 얻을 수 없는 이점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운 뒤 땅이 단단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친한 사이에는 싸우기도 잘하며 또한 금새 친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과거의 잘못에 연연해서 앞으로의 길고 희망찬 미래를 그르치는 것은 과거의

잘못보다 더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의 한일 양국간의 친선교류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교류란 먼저 상대방을 많이 알고 깊이 이해하는데서부터 비롯되어 개인간의 우정이 싹트고 개인이 모여 집단이되고 집단의지가 국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때 이번의 길지도 짧지도 않은 한달간의 교류연수는 정말로 뜻깊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한달간의 일정 계획이 너무나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짜여져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된 것도 우선 큰 성과이며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하여 일본의 역사, 문화, 경제, 사회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배운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富士靑少年(후지청소년)센터에서의 짧은 2박3일이었지만 많은 일본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하여 보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기관과 업체를 방문하여 근면성실한 일본인과 세계 최고의 부국인 일본의 진면성을 보다 자세하게 알수 있게되었다. 福岡縣(후쿠오카현)에 갔을 때는 사람들의 외모부터 우리와 너무나 비슷하여 친근감이 나는 데다가 너무도 친절하고 음식이 한국과 매우 비슷하여 마음속으로부터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홈스테이 가정에서는 초청가정의 주부가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지는 한국의 진도였으며 그시대에 나의 부친은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이러니컬”한 감정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은 뿔래야 뿔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日光(닛코), 箱根(하코네), 宮島(미야지마), 奈良(나라), 京都(쿄오토오), 阿蘇山(아소산)등의 절경과 풍경은 집 떠나면 고생이란 한국속담이 틀렸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이제 어느덧 한달이란 짧은 시간은 지나가고 석별의 시간이 왔다.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발

씨 정이 들었나보다, 헤이집에 앞서 생각나는
얼굴들! 그러나 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
하면서, 정든 사연을 고대하면서, 헤어짐의 아픔
을 달래본다.

국제교류라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개인 서
로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서로간의 정을 느
끼는 것이 참된 국제교류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
각하면서 이번 한·일양국 친선우의교류를 위하
여 노고를 아끼시지않은 일본정부 당국과 JICA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하지매마시테!”



구 국립박물관(서울)

3. 합숙세미나 참가 일본청년의 말

나의 참된 마음의 벗들에게

神奈川県(가나가와켄) · 단체직원
岩間 敏之 (이와마 도시유키)

그동안 별고없으신지요!

4 일간의 합숙세미나는 눈깜짝할 사이에 끝나 버렸습니다만, 지금도 지나간 일을 되새기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흥분을 느낍니다. 나의 마음을 이토록 뜨겁게 한 것은 다름아닌 한국 청소년의 애국심과 일치단결의 정신입니다. 그들의 조국이나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에, 참가한 우리 일본인들 누구나가 다 감동한 것 아닐까요?

처음에는 웬지 축스럽기만 하던 우리들이, 나중에는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고 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꾸밈없는 솔직한 마음의 교류가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체험해야만 이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가운데서의 교류수단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무의식 중에 일본인 친구들과도 마음으로 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을 안해도 우리는 서로 항상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해 나는 얼마나 큰 평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사회에 나가면 친구는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마음의 친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청년과의 마음의 만남은 나에게 있어서는 뜻밖의 선물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과 마음을 통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언제까지나 이 만남을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안녕.

마음에 남아있는 일들

東京都(토오쿄도) · 학생
大門 玲子 (다이몬 레이코)

「참가할까 말까」 망설임 끝에 신청하였던 세미나. 나에게 있어서는 여러가지 체험과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참가중에는 언어의 벽에 부딪쳐, 영어, 한국어, 일본어, 3개국어가 뒤섞인 교류이었다. 단 하나의 단어를 상대방에게 전하기 위해 손에는 사전, 펜을 갖고, 손짓, 몸짓, 글로 쓰기도 하는 악전고투를 하면서도, 서로 납득이 갈 때까지 이야기한 적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최종일의 C 그룹(교육분과회)의 교류회에서의 일이다. 코오디네이터에게 통역을 부탁하고, 몇가지의 질문을 한국 친구에게 했는데 이야기가 좀처럼 통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 하나하나 친절히 통역을 해 주셨는데도 아무래도 질문의 내용이 어긋나버리는 것이다. 종이 위에는 한자, 영어, 한글문자가 쓰여지고, 코오디네이터를 둘러싼 회화, 좀처럼 생각대로 통하지 않았다.

회화 중에는 전문용어도 섞이었으나, 「어떻게 말하면 될까?」 하고 머리를 갸웃거리리는 때도 있었다. 잠시 지난 후, 코오디네이터께서 「일본은 구체적인 표현, 한국측에서는 추상적인 표현이라서 어긋나는게 아닐까요?」 라고 하여, 내 자신 질문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한국과 일본, 일상생활에서 몸에 익히고 있는 사물에 대한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음에 새삼 놀랐다. 한국 친구도 이것을 듣고, 웃음을 띠우기도 했었다.

그후, 서로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일상에 있는 그대로를 설명함으로 인해, 오해를 풀 수가 있었다. 장시간의 회화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불과 얼마되지 않았으나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주 귀중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세미나에서는 가깝고도 먼 한국의 일면을 배울 수가 있었다. 세미나에서 기른 「우정」을 이 후로도 소중히 간직하고 나의 친구들에게도 세미나에서의 체험을 들려줄 생각이다. 끝으로 한국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것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다.

가깝고도 먼 나라

埼玉県(사이타마켄) · 학생
春日 理世 (가스가 미치요)

작년 여름 나는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다. 청소년단체파견이라는 학생대상의 프로그램이라 여러가지 경우를 통해 한국 학생과 교류할 수가 있었다. 그때는 서로 학생신분이라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지금 생각하면 밝은 면만 보아 온 것이 아닐까.

이번 합숙세미나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바로 그런 기분이었다. 그렇지만 실제 분과회로 나뉘어 대화가 시작되자, 청년지도자들의 의견은 역시 학생들과는 다른 것이 있었다.

실제로 한국에 갔을 때에 느낀 이상으로 한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임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느낌이었다. 역시 일본은 한국에게 있어서는 마이너스적인 이미지가 강한 나라가 아닌가하는 느낌이 든다. 그것은 과연 모든 「일본인」에 대해 그런 것일까.

나는 이번 교류를 통해 얻은 것이 뭔지 되 돌아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NO」라고 생각된다. 확실히 추상적 「일본인」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요인이 강함을 느꼈으나, 개인으로서의 「일본

인」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다르지 않을까?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해 좀 더 알고싶다는 자세가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치더라도 일본인 한사람 한사람이 보다 많은 이해와 지식을 갖고 한일관계의 문제에 임한다면, 「민거리」가 가까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똑같은 인간이기에 「일본인」이라는 틀 속에 숨겨나, 또는 그 이미지를 가진 채로 접하는 일이 없어진다면, 서로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게 아닐까.

이번 프로그램에서 생긴 우정이 보다 크게 자라고, 그것이 서로의 나라 전체에 조금이라도 넓히져 가도록 노력하려는 바이다.

합숙세미나에 참가하고

北海道(홋카이도) · 공무원
岡野 賢 (오카노 켄)

지금부터 나의 솔직한 감상을 문체에 얽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써가려고 합니다.

나는 이 세미나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두가지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①한국청년과 친구가 되자. ②일본청년과 친구가 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 이 점에 관해서는 만족할 점수를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런 세미나는 나에게 있어서 매우 뜻깊은 것이었고, 무척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한국사람들은 모두 사교적이고 밝은 사람들이어서 내심 놀라고 말았습니다. 조금 딱딱한 사람들이 아닌가하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리분별이 확실한 면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인이 배워야할 점이었지요.

언어의 차이를 빼면, 일본인과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벽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점차로 한국(인)을 좋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이야기나 한국어는 할 수 없고 영어도 조금밖에 못하므로 내가 분말할 수 있는 자리는 밤의 교류회 밖에는 없었습니다. 나는 한잔씩 마셔가면서 하는 교류를 좋아하고 또 교류상에도 필요한 일로 생각합니다.

어느덧 4일간이 금방 지나가버리고, 헤어질 때가 왔습니다. 한국인과 헤어지는 것은 물론, 일본인과 헤어지는 것도 아쉽고 섭섭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세미나에서는 한국 일본 할 것 없이 똑같은 합숙을 하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행동해왔기 때문이었지요.

지금 느끼는 것은 참가하여 정말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도 한국, 關東(칸토우) 關西(칸사이) 四国(시코쿠) 沖繩(오키나와)의 여러분들과도 교류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끝으로 이 사업의 주최자인 國際協力事業團(국제 협력 사업단)과 中央靑少年團體連絡協議會(중앙 청소년단체 연락협의회) 측에게 전심으로 감사할 따르는 바입니다. 그리고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오래 계속되기를 염원하면서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세미나에 참가하고

兵庫縣(효오고켄)·학생

杉山 知子(스기야마 도모코)

이번 한일 청년합숙세미나는 나에게 있어서 예상이상으로 멋진 것이었고, 또 많은 일매가 있는 것이었다.

箱根(하코네)에서의 토론, 교류의 밤, 오리엔테일링, 스포츠대회등 그 모두가 인상깊은 것들이었는데, 특히 3일째 밤, 네 사람의 한국인과 시간가는 줄 모르고 한일관계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쓰려고 한다.

그날 밤 목욕을 끝내고 방으로 돌아가는 중, 어떤 일본인에게 일본에서의 한국 대통령선거 보도를 영어로 설명해달라고 하는 부탁으로, 내

사람의 한국인과 대화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일본에서의 보도와 그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듣고 또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소위 지역감정에 대해서 듣기도 했다.

그리고, 이야기는 한일의 경제관계나 남북통일문제까지 전개되어 나갔다. 경제에 관해서는 개선되지 않는 대일적자문제에 대해 심한 비판을 받고, 그에 대해서 나도 한국의 재벌이나 중소기업의 실태나 경영형태에 관해, 짧은 지식이거나 의견을 말하고, 금후의 한일 경제협력의 자세를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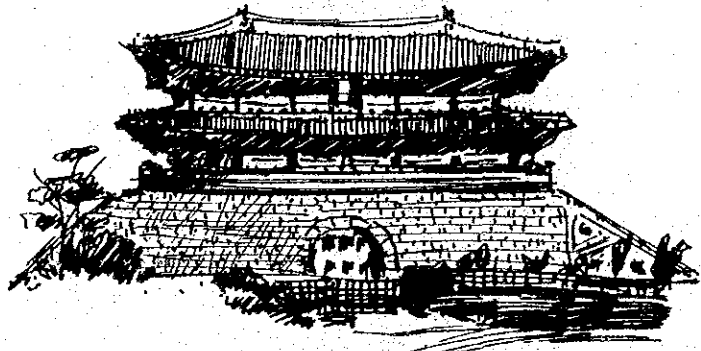
또, 남북통일문제에 관해서, 그 적지않은 원인은 일본에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적지 않게 놀랐다. 그때까지 나는 남북통일문제는 한국과 북한 나아가서는 제 2차대전후의 미소간의 갈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일본은 재삼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 받아들이는 방식이, 나라가 다르면 이렇게도 틀리는 것인가하고 역사에 대한 사고방식의 차이를 통감했다.

물론, 부드러운 이야기도 했다. 예를 들면 모랄의 저하나 가치관의 바람직한 상대 등의 문제이다. 유교의 영향이 강한 한국에서도 현재 서서히 모랄이 저하되고 있고, 그에 대해 위기감을 안고 있다든지, 가치관도 상대적인 것보다도 절대적인 가치관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리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모랄의 저하는 역사적인 필연성이라고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던 나에게, 또한 진리를 추구하기 보다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일본인에게 있어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모랄이나 가치관에 대한 사고방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딱 의미 깊었다.

어느덧 시계는 한시 반을 돌고 있었다. 실로 내 시간 가까이 이야기에 잠겨 있었던 것이다.

침식을 같이하고 외국인과 차분히 이야기할 시간이 많은 이 프로그램은, 일본과 외국과의 상호이해(특히 서민층과 같은 레벨에서의)에 있어서, 꽤 의미깊은 것이고, 이제부터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남대문(서울)

4. 홈스테이 가정이 느낀 인상

이오경이 우리집에 와서

神奈川県(가나가와켄) · 지역업
高梨 真光 (다카나시 마사미쓰)

李潯京(이오경)이 우리집에 온 것도 4주일전의 일이고 한국에 돌아간지도 벌써 일주일이나 지나갔습니다. 우리집에서는 모두 그를 "오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가 우리집을 다녀간 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한글에 관심이 많은 터라 이번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네이티브 스피커를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도 반드시 팬을 가지고 가서 지금까지 들이보지 못한 일본어를 들으면 곧장 메모를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쪽에서 얘기하는 한글이 틀렸을 경우에는 몇번이고 고쳐주기도 하며, 서로가 홈스테이를 즐기면서 언어 공부도 하였습니다. 겨우 3일간에 서로 상대편의 언어가 조금은 숙달된 것도 같아 제가 한국말, 그는 일본말로 「꽤 늘었군요!」라고 서로 격려할 만큼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가 우리집에 있는 동안은, 제가 의식하려고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툴기는 하나 한글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일본어를 말하고 있는 것 처럼.

또 우리집 식구들은 한글의 세계는 첫 경험이었습니다만, 이상할 만큼 어떠한 위화감도 없이 오경도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융화되었습니다. 친척중에 한사람이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경은 서툴기는 하지만 일본어로 「저와 당신은 영원한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말을

들으니 참으로 기뻐합니다.

만약 이번엔 이쪽이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있으면 꼭 그의 집을 방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참으로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교류를 통하여 실제로 한국의 청년들을 맞이하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체험이 되었고 멋진 친구들을 사귄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청년을 맞이하고

青森県(아오모리켄) · 농업
浦田 秀人 (우라타 히데토)

한국이라고 듣고 위치는 중국쪽이든가? 크기는? 아마 가난한 나라이겠지?

이정도 지식도 없는 내가 한국청년을 맞이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치 못했다.

농촌 청소년클럽에 青森県(아오모리켄)의 靑少年団体連絡協議會(청소년단체연락협의회)로부터 한국과의 국제교류의 기회와가서 모두 부풀어 있던 차에 홈스테이 가정을 수명 필요로 한다 하여 나를 포함한 7명이 맞이하기로 되었다. 나는 그후, 어느 정도 한국에 대한 지식을 갖으려고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결국은 생각만으로 그 무렵에 있었던 한국 대통령 선거를 텔레비전을 통해 조금 알고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나 여동생은 말이 통하지 않는 문제나 식사등 평소의 생활문제에 대해 여러가지로 걱정 하였으나 집에 데리고 와서 보니 식사는 세공기를 먹을 정도로 식욕이 왕성했고, 손짓 몸짓으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즐거워서 어머니도 안심하였다.



다음날은 아침부터 가랑눈이 내렸으나 어머니와 상담하여 파이프하우스의 비닐치리를 같이 하기로 했다. 한채는 손짓 몸짓으로 설명했으나 두세부터는 스스로 먼저 해나가는 것을 보고 놀라고 말았다. 점심식사 후 눈발이 조금 강해지기 시작하였으나 우리는 이정도에도 작업을 하니, 계속하자는 의미에서 참가갈이를 하기로 했다. 내가 기계로 두세뿌리 파내자, 설명없이도 기계를 움직이거나 멈추거나 하여, 늦긴하지만 잘 파내어, 과연 한국의 농촌청년이라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밭 가장자리를 기계가 들어가도록 2, 3미터 시험적으로 파달라고 하자, 좀처럼 파지 못하긴 했으나 열심히 파고 있어서 그대로 계속도록 했더니, 밭이 질척질척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나중에는 상당히 숙달되어, 처음에는 추워하던 것을, 추위도 잊고 일하고 있었다.

내가 한국청년을 맞이하여, 농업을 통해 일에 열중하고 있는 그를 보고 느낀 것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목적이 똑같으면 눈으로 마음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보다도 밝고, 작은 일에도 흥미를 갖고 감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에도 꽤 수출하며 중진국이나, 일본은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마음은 발전도상국이 되어 있다.

이제부터도 각국과의 교류를 증진하고 일본이 반성해야 될 점을 발견하여 마음도 역시 선진국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마을에서부터 국제교류가

시작되고 나아가 이리 각도로 확대되어 인간 모두 형제라는 정신으로 사람과의 화해를 가져나가고 싶다.

2박3일의 홈스테이를 마치고

青森県(아오모리켄) · 농업
三浦 博寿 (미우라 히로토시)

이번에 나는 대한민국의 농촌청년 25명 중, 남자 한 사람 崔 教烈(최 교열)씨를 맞아드렸습니다. 우선 느낀 것은 그들 한국인은 순위 사람에게 대해 아주 예의 바르다고 할까,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집에 와서 처음 인사를 할 때도 가족에게 어서 앉으라고 몸짓으로 전한 후 자기도 정좌하고, 마루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깊이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고, 우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저녁식사 자리에서도 술과 담배는 나의 부친이 어서 들라고 말할 때까지 마시지 않고 술을 마시더라도 순위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등을 돌려 마시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은 스스로 조부모, 또한 선조를 경외하는 것에 연결되는게 아닌가, 그리고 노인을 장애물 취급하는 일본을 생각하며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본인은 아직도 한국을 조선이라 부르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뿌리깊게 그러한 면에서의 반일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돼지우리 견학을 간 곳에서 만난 중년의 사람이, 이야기끝에 「조선은 이러쿵 저러쿵」하고 조선이라는 말을 내뱉고 말았던 것입니다. 최 교일씨는 일국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마음 속으로는 아마 전달 수 없는 심정으로 가득찼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말해 내가 처음에 말해 두었어야 했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진정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역사를 일본 국민에게 알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명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려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제부터의 한일우호가 지금 이상의 결실 있는 것이 되는 길이라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국청년과 함께

靑森縣(아오모리켄) · 농업

佐々木 和枝 (사사키 가즈에)

나는 타국인과의 교류, 그것도 홈스테이라는 것은 처음 체험했습니다. 우선 가족의 승낙을 얻고 사전연수, 교류회등을 거쳐 홈스테이까지 도달했습니다.

한국인이라 해도, 금방이라도 일본어로 말을 걸어올 것 같은 정도로 일본인과 닮았고, 겁먹지 않고 적극적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집에는 方敬欄(방 정란)씨와 鄭点子(정 점자)씨의 두 사람이 홈스테이 하러 왔습니다. 방정란씨는 차분한 성격같았고, 정점자씨는 학생으로 아직 어린애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두사람 다 아주 밝아서 가족과도 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용은 서로의 가족이나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루를 지내고 두 사람 모두 폭 잘 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은 松本(마쓰모토)씨 집에 홈스테이한 두 사람과 우리집 가족

6 명이 쇼핑하러 나갔습니다. 여성은 역시 악세사리류에 눈이 가는가 봅니다. 이날 밤은 三沢(미사와)지구 4 H클럽의 사람들이 모여 보울링을 하기도 하고, 松本(마쓰모토)씨 집에서 잡담도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모두 젊은이들이므로 각각 호감어가는 사람에게 손짓 몸짓으로 말을 건네기도 하며, 마음으로부터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홈스테이에 온 사람들도 만족하고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으로 할 수 없는 체험을 나는 한 셈이므로 나에게 있어서도, 가족에게 있어서도 꼭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청년들도 우리도 나라를 젊어지고 나갈 입장은 똑같으므로 앞으로의 농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홈스테이를 언제든 받아드릴 작정으로 저 자신이 여러번에서 계속 노력해 나가야지 하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

靑森縣(아오모리켄) · 농업

川口 勉(가와구치 쓰토무)

3 일간의 홈스테이를 마치고, 내가 느낀 것은 글자 그대로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것이다.

교류의 막은 노래로 열려졌다. 리더의 지휘 하나로 소리 높여 노래부르며, 힘있게 움직이는

모습, 주위를 의식하는 일 없는 진진직한 자세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나타내고 있는 듯 하였다. 「애국심」이라는 말이 때 오른다. 그들이야말로, 그 말에 적합한 민족이다.

한국인은 일본을 적시하고 있다고 들어 왔다. 그러나, 그들 청년과 이야기하는 동안 불안의 안개도 걷혀있다. 둘째날의 밤, 같은 마을의 홈스테이 가정이 모여 회식했다. 식후의 어느 한때, 한자와 제스츄어를 섞은 대화가 열기를 띠었다. 한국에서는 연장자 앞에서 담배를 피거나 술은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술을 마시는 법, 따르는 법에도 매너가 있다고 한다. 그들의 애절에 감동이 되었다.



돌아갈 때 「사랑해」와 「반딧불」을 불렀다. 「반딧불」이 한국에도 있음에 놀랐다. 하나의 노래를 서로의 모국어로 불렀다. 이것이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는 것일까.

이 지방의 홈스테이 일곱 집이 모여 보울링을 했다. 친진하게 즐기고 있는 얼굴, 모습에 나라의 구별은 없다. 스포츠로 마음을 터놓는 젊은이들에게 말이란 필요없다.

우리집에 숙박한 청년은, 바둑을 둔다고 하기에, 한 수 놓았다. 바둑에서는 잘 두는 쪽이 백을 잡는 매너가 있으나, 서로 흑을 잡으려 했다. 새삼스레 태극에서 전해온 문화를 생각했다. 옛날 聖德太子(성덕태자) 시대에는 조선을 거쳐 문자, 종교, 건축기술 등, 여러가지 문화를 전해 받았다. 그런데도, 불과 수십년전의 전쟁이,

양국을 「가깝고도 먼 나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한국청년은,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일본은 다시, 그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금후 더욱 발전할 것이라. 나는 일본을 더욱 더 살기좋은 나라로 하고, 인젠가 다시 여러분들을 맞으려고 생각한다. 또 기회가 오면 한국에도 꼭 가보고 싶다.

한국 청년은 바둑은 조금 밖에 못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31집차로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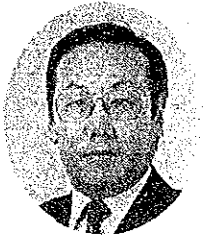
5. 초청 청년 명부

*이 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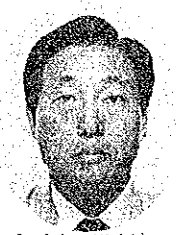
*현 직

*연락처

*전화: 직장, 자택



성 기훈(成耆薰)
총 단장(總團長)
Chief Director
Dept. of Planning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al, Research &
Training
230-119 Changwui 1 Dong
Sungbuk-ku Seoul Korea
02-733-2491 02-912-1480



윤 한철(尹漢哲)
부 단장(副團長)
Director
Vocational Edu. Section
Ministry of Education
217-203 Jugong Apt.
Banpo-Dong Kangnam-Ku
Seoul Korea
02-720-3334 02-599-2276



황 명수(黃炳洙)
간 사(幹事)
Assistant Director
Non-Formal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Samick Green Apt
608-201 Myungil-Dong
Kangdong-ku Seoul
Korea
02-720-3403 02-478-8674



신 명(申 泓)
반 장(班長)
Assistant Director
Women & Minor Division
Ministry of Labour
Ministry of Labour
Labour Standard Bureau
Kwachun-City Kyoungki-Do
Korea
02-503-9746 02-557-3154



조 명신(趙明信)
Official
Nuclear Cooperation Division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Nuclear Safety & Coopera-
tion Office, Min. of Science
& Technology Gwacheon
171-11 Korea
02-503-7651 02-919-0555



최 경화(崔敬花)
Staff
Pf Production Division
Kolon Industries
Company
Kyungbuk Gumeck
Gongpan-Dong 212
Kolon Co.
Korea
0546-2-2181 0546-2-2178

근로청년



엄 애리(嚴愛里)
Student
Precision Measurement
K.I.M.M.
Sillim Lim Apt 614
7-9 1638-1 Sill Lim-Dong
Kwanak-Gu Seoul Korea
02-841-0541 02-882-5563



함 미옥(咸美玉)
Staff
Product 1
Haitai Cofectionery
Co. Ltd.
647-55 1-Tong 7-Ban
Dungchon-dong Kangseo-Ku
Seoul Korea
02-677-7766 02-634-4721



진 윤순(金潤順)
Staff
Production Division
Hahnil Textile Co. Ltd.
Hanil Bangjick Complex
430-2 215 Haki K-Dong
Nam-Ku Incheon-City
Korea
032-864-7224 032-864-7225



김 진숙(金鎭淑)
Clerk
Export Division
Yoo Jin Metal Co.
Yoo Jin Metal Co.
581-36 Chang-Dong
Dobong-Gu Seoul Korea
02-992-8452 02-992-7475



신 한옥(辛漢玉)
Staff Division
General Department
Shany Co. Ltd.
173-3 Gamjeon-Dong
Buk-Gu Busan Korea
051-93-6681~7 051-93-6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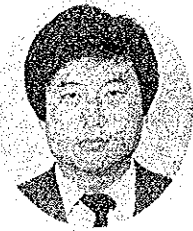
안 진호(安辰鎬)
Teacher
Teachers Division
Yeongbong Primary
School Kwangju
240-36 Sinahn-Dong
Buk-Ku Kwangju-Si
Korea
062-55-1251 062-525-5712



안 용석(安龍奭)
Student
Electronics Division
K.I.M.M.
535-23 Silrim 8-Dong
Kwan Ank-Gu Seoul
Korea
02-841-0541 02-867-5136



조 동주(曹東柱)
Senior Staff
Science Affairs Div.
The National Science
Museum Seoul
National Science
Museum 2 Wa Ryong-Dong
Jongro-Gu Seoul Korea
02-762-5204 02-742-3105



홍 전표(洪全杓)
Senior Clerk
Labour Policy Division
Ministry of Labour
2nd Government Bldg.
1 Chunang Dong Kwachun
City Kyonggi-Do Korea
02-503-9730 02-684-3051



정 재성(鄭在成)
Teaching Assistant
Department of Biology
Korea Institute of
Technology
Dept. of Biology, Korea
Instit. of Technology
400 Gugung-Dong
Choong-Gu Daejeon Korea
042-823-1234 042-525-3462



김 중남(金鍾南)
Student
Heat Management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 Metals
1404-Ho 1215-Dong
Jugong Apt. Chulsan
3-Dong Koang Myung-Si
Kyunggi-Do Korea
02-841-0541 02-688-4403



김 정완(金貞完)
Ladle Preparation
First Steel Making Div.
Pohang Iron and Steel
Company
Gyungsangbuk-Do Pohang-Si
Dongchon-Dong 5-Bu Nji
Posco Jegang-Bu 1
Making Steel Korea
0562-7092160 0562-43-1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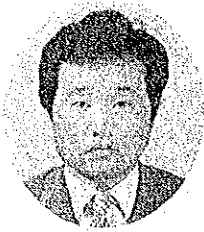
김 양기(金亮起)
Teacher
Teacher Division
Dalsung High School
Daegu
Dalsung High School
Naedang 7 Dong Seo-Gu
Daegu Korea
053-52-2954 053-622-2092



고 광로(高光老)
Assistant Director
Manpower Development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808-401 Government
Official Apt. 307
Kodug-Dong Kangdong-Gu
Seoul Korea
02-503-7617 02-470-1157



고 종환(高宗煥)
Meteorologist
Pusan District Branch
Korea Meteorological
Service
Pusan Meteorological
Service 1-9 Deachung-Dong
Chung-Gu Korea
051-44-7009 051-44-7009



이 중수(李鍾壽)
Staff
General Affairs Sec.
Tongyang Moolsan
Co. Ltd.
Dongyang Moolgan Co.
Ltd. 803-17 Iri-City
Jonrabuk-Do Korea
0653-2-7111 0653-6-2252



이 현희(李賢熙)
Staff
E.D.P.S.
Hyosung Industries
Co. Ltd.
Computer Room Blok A-1
Changwon Industrial
Complex Nai-Dong Chang
Won Kyungnam Korea
0551-82-0141 0551-82-3136



이 오경(李吾京)
Student
Engineering & Design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etals
296 637-5 Ah-Hyun
2-Dong Mapo-Gu Seoul
Korea
02-841-0541 02-363-8789



이 윤호(李允鎬)
Teacher
Teachers Division
Dusan Primary School
Chungwongun
297-81 Tob-Dong Cheong
Ju-Si Chung Cheong Buk
Do Korea
0431-50-4202 0431-64-6861



모 상현(牟相炫)
Technical Engineer
Research & Planning Div.
The National Science
Museum Seoul
2 Waryong-Dong
Jongro-Gu Seoul
Korea
02-762-5205 02-354-6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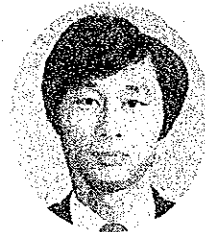
남 성호(南成浩)
Teaching Assistant
The School of Ee & Cs
Korea Institute of
Technology
Korea Institute of Technol-
ogy Eecs 400 Gusung-Dong
Chung-Gu Taejeon Chungam
Korea
042-823-1234 042-524-7705



오 성진(吳成鎭)
Staff
Personnel Adm.
Samsung
Electro-Mechanics Co.
314 Maetan-Dong Suwon
Kyungki-Do Korea
0331-30-5893 0331-30-5893



박 재신(朴在信)
Student
Management Science
Korea Institute of
Technology
400 Gusung-Dong Jung-Gu
Daejeon Chungnam
300-31 Korea
042-823-1234 062-232-9983



유 중준(柳鍾準)
Meteorologist
Korea Meteorological-
Service
Korea Meteorological-
Service
1 Songwol-Dong, Chongro-
Gu, Seoul 110, Korea
02-737-0011~0017
0391-43-1129



서 귀석(徐貴錫)
Assistant Chief
Chemicals Supply C.
Korea Science
Foundation
627-251 Anyang 5-Dong
Anyang City Kyoungki-Do
Korea
02-555-2043 0343-3-6235
44-5971



석 재규(石在圭)
Student
Engineering & Design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etals
269 Eui Jeongbu-2-Dong
Eui Jeongbu Kyunggi-Do
130-30 Korea
02-841-0541 0351-42-6252



신 세진(申世珍)
Staff
General Affairs
Changwon Carbureter
Ind. Co. Ltd.
Changwon Plant: 853-12
Wae-Dong Changwon
Kyung-Nam Korea
0551-82-5201 0551-82-5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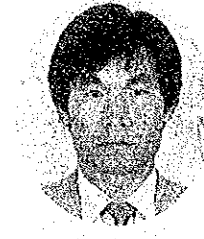
원 찬희(元瓚喜)
Teaching Assistant
Dept. of Mechatronics
Korea Institute of
Technology
400 Gusung-Dong
Jung-Gu Taejeon
Chungnam Korea
042-823-1234 042-252-1948



원 유존(元裕尊)
Staff
Technology Department
Goldstar Instrument &
Electric Co. Ltd.
499 Doil-Dong Songtan-
City Gyeonggi-Do
180-85 Korea
0339-8-2191 0339-8-8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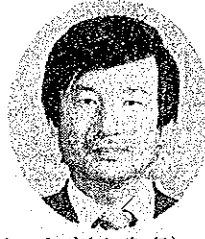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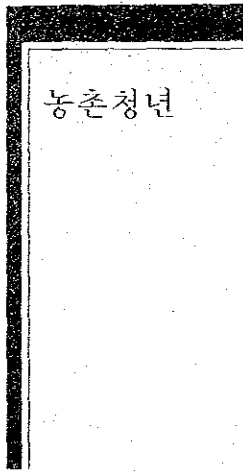
양 학모(梁鶴模)
Engineer
Mechanical Engineer
Baikyang Company Ltd.
658-117 Aongsan-Dong
Jeon Joo-City Korea
0652-5-5011 0652-75-1453



유 재훈(柳在埴)
Engineer
Bus Manufacturing
Asia Motors Co. Inc.
913 Dong Ho-Ree
Bongang-Meon Kwang
San-Goon Chun Nam
Korea
062-265-0031 062-362-7886



윤 영광(尹永光)
Chief
Science Promotion Sec.
Korea Science
Foundation
960-12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02-555-0838 02-885-4723



김 성태(金成泰)
반장(班長)
Assistant Director
Int'l Cooperation
Min. of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
#106-508 Joogong Apt
Naeson-Ri Eulwang Eup
Siheung-Kun Kyung-Gi
Province Korea
(02)-500-2644 (0343)54-4546
2645



방 경란(方敬蘭)
Farmer
Nan Jeong 1Ri 780 Kyo
Dong Myon Kan Hwa Kun
Kyeong Gi Do Korea
0349-32-4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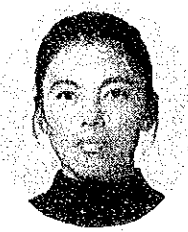
변 순님(邊順南)
Chung Nam Spining
Company Chean Mill
106-2 Wha Cheon Dong
Chen An City Chung Nam
Do Korea
0417-565-0001 0372-2-4833



정 점자(鄭点子)
Farmer
94 Gak Dong Ri Bong
Huang Myon Na-Ju-Kun
Jeon-Nam Korea



김 미정(金美貞)
Staff
Inspection Department
H Shin Electric
Equipment Co. Ltd.
42-3 Won Mi Dong
Bu-Chun City Kyung-Gi-Do
Korea
(H Shin Electric Co.)
32-662-6661 32-662-6661



김 순남(金順男)
Head
Dept. of Production
Dae Han Raw Silk Co.
Ltd. Youngju Factory
315 Eup Nea Ri Sun
Hung Myun Yong Pung
Gun Kyung Buk Korea
0572-2-2318 0572-2-2318



김 언희(金蓮姬)
Farmer
Nochen-Iri 507 Dong
Myeon Ilong Chen Gun
Kangwondo Korea
0366-33-5528



이 재순(李在順)
Farmer
142 Jung Bang Ri Soon
Seong Myeon Dangjin-Kun
Chung Cheon Nam-Do
Korea
0457-361-4850



이 숙이(李淑伊)
Farmer
487 Samjung-Dong
Kimhae-City Kyung-Sang-
Do Korea
2-7983



이 영숙(李永淑)
Staff
Refrigerator Division
Golostar Co. Ltd.
Kum Sung Co. 391-2 Ga
Eumjung-Dong Chang-Won-
City Kyung-Nam-Province
Korea
0551-82-4321



박 은정(朴恩貞)
Staff
Quality Control Sec.
Nam Yang Fishing Net &
Gear Mfg Corporation
Nam Yaong of Naong (Ju)
Sek Hyun Dong Mok-Po-Si
Jeon-Nam Korea



박 종순(朴鍾順)
Farmer
589 Woul Lim Ri Kum
Soung Myon Jae Won-Kun
Choung Buk Province
Korea
(0443) 42-9770



임 옥련(林玉蓮)
Farmer
Byeong Am Ri 262 Gwan
Chon Myeon Im Sil Gun
Jeon Buk Korea
0673-42-0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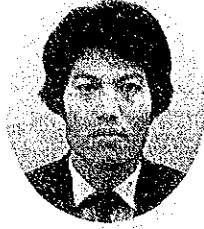
최 교열(崔教烈)
Farmer
777 Okdae-4ri Da san
Myon Youngpong-Kun
Kyeong-Buk Korea
0572-33-5166



김 창희(金昌晷)
Farmer
Vice Chairman
Yangpyung-Kun Rural
Leadership Office
178, Myungsung-1ri
Danwol-Myon Yangpyong-
Kun Kyonggi-Do Korea
0338-73-2060



김 진동(金鎭銅)
Farmer
450 Juri Sonyang-Myon
Yang-Yang-Kun Kangwon-
Do Korea
0396-2-4428



김 진락(金鎭洛)
Farmer
221-15 Yeon Pyeung-Dong
Yeung Hai-Myeon Yeung
Dek Gun Kyeong-Buk
Korea
32-0991



이 흥규(李興圭)
Farmer
Segok-Ri 161
Chil-Seong-Myon Guca-
San-Gun Chung-Buk-Do
Korea
32-5158



이 교산(李敎山)
Farmer
Bangok Ri 359 Chil Bo
Myon Jeong Ub-Gun
Jeon-Buk-Do Korea
0681-34-3618



이 수관(李水均)
Farmer
Pyong-Chon Ansoung-Ri
Myosan-Meoun Hapchoun-
Gun Kyong Sang Nam-Do
Korea



서 도훈(徐道焄)
Farmer
225 Chui Chun Ri Bong
Hwang Myun Naju-Gun
Chung-Nam Korea



신 재명(申載明)
Extention Officer
Rural Gujdance Bureau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6 Jang-An Apt
220-37 Hwa-Sea Dong
Suwon Si Kyung Ki Do
Korea
503-7244 0331-45-8867
0331-6-2101



신 정수(申正秀)
Farmer
Juk Dong 102
Jung-Gu Daeneon-Si
Chung-Nam Korea
8222320



송 응준(宋應俊)
Farmer
1346 Taeheung-Ri Nam
Weon-Up Nam Jeju-Gun
Jejudo Korea
64-1351



송 영해(宋永海)
Farmer
196-28 Youl Hun Dong
Kangnam Ku Seoul Korea
(02) 406 4663

청년지도자 A



홍 옥선(洪玉善)
반장(班長)
Head-Quarters
Mountaineering Part
Korean Alpine
Federation
704 Kuemsan Bldg.
Yoido-Dong Youngdungpo-
Gu Seoul Korea
02-782-5539 02-816-4079



김 현주(金賢珠)
Manager
Kyungnam Council
Kyungnam Council Girl
Scout of Korea
274 Jasan-Dong
Kyungnam Council Girl
Scouts of Korea
Masdn Korea
0551-2-8240 0551-3-3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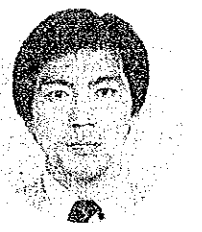
김 명순(金明順)
Member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 for All
16 Tong 4 Ban
113-36 Shingil 1 Dong
Young Dung Po Gu Seoul
Korea
02-690-2321 02-844-7713



염 미연(廉美蓮)
Councillor
Women & Youth Division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Korea
316-13 Hyong Song-Dong
Buk-Ku Inchon Korea
032-522-1569 032-63-3439



조 택구(趙澤九)
Member
Sports Division
Leisure & Recreation
Association in Korea
226-9 Koduk-Dong
Kang Dong-Ku Seoul
Korea
02-544-5440 02-472-4789



전 만동(全萬童)
Coach
Sports for All Korea
Association
Sport for All Korea
Association 172 Dunch-
ondong Kangdong-Ku
Seoul Korea
02-484-8914 02-470-0722



정 용민(鄭容敏)
Staff
Planning Department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 for All
770-13 Mog 4-Dong
Gangseo Gu Seoul
Korea
02-690-2321 02-696-7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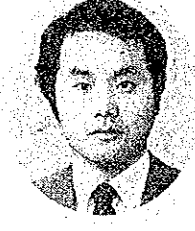
강 창일(姜昌日)
Plan. & Public Relations
Producer
Performance Management
Division
The National Theatre-of Korea
San 14-67 2-Ka Chang
Chung-Dong Chung-Ku
Seoul Korea
02-274-1173 02-567-0001
0343-55-1507



김 종식(金鍾愍)
Staff
Management Division
Korean Olympic
Committee
Korean Olympic Committee
19-Mukyo Dong
Chung-Gu Seoul Korea
02-777-6081 02-418-4682



김 남성(金南城)
Member
Mountaineering Part
Korean Alpine
Federation
365-1 Hongje-Dong
Seodaemun-Gu Seoul
Korea
02-782-5539 02-736-5473



권 경주(權卿周)
Volunteer
Youth Section
Seoul Youth Center
13-307 Jangmi Apt
Shinchung-Dong Gangdong-
Gu Seoul Korea
02-267-2111 02-422-5666



이 선재(李銑宰)
Programme Coordinator
Unesco Youth Center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P.O. Central 64 Seoul Korea
02-776-4402 02-400-1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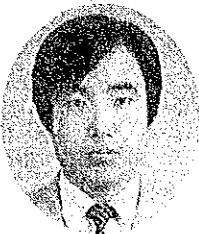
김 선용(金善用)
Supervisor
Programme Department
Korean Youth Hostel
Association
469-48 Buni-Dong
Dodong-Ku Seoul Korea
02-266-2896 02-994-0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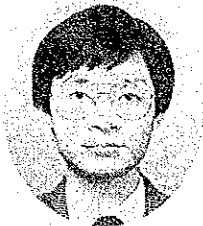
문 석봉(文錫奉)
President
Directing Department
Theatre Company
Kwang Jang
200-175 1F Ga Room
Sinsadong Eanpueng-Gu
Seoul Korea
82-02-306-86
02-743-8741



박 덕훈(朴德焄)
Manager
Korean Literary Ass.
Seoul Association for
Youth Service
100-00 Seoul Youth Center
#27-1 Supyo-Dong Chung-
Ku Seoul Korea
02-267-2111~2113
02-733-8258



박 세환(朴世完)
Staff
General Affairs
Boy Scouts of Korea
Yeouido 18-3 P.O. Box 280
Seoul Korea
02-782-1803



신 문종(辛文宗)
Clerk
International Affair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107 Dong 401 Ho Jukong
Apt.) 459-11 Bisan-1 Dong
Anyang City Kyungki-Do
171 Korea
02-735-2702 0343-45-4923



신 양숙(申良淑)
Secretary
Researching Division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612-2 Ahyon-Dong
Mapo-Ku Seoul Korea
03-735-2701 02-362-9643



유 재봉(柳在奉)
Staff
Youth Culture Dept.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617-47 Ahyun-Dong
Mapo-ku Seoul, Korea
02-762-5231 02-362-7237



윤 경태(尹景泰)
Secretary
Youth Department
Pusan YMCA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Pusan YMCA 1143
Choryang-Dong Dong-ku
Pusan Korea
051-42-1659 051-57-4784

청년지도자 B



문 병신(文炳善)
반장(班長)
Assistant Director
Social Sports Div.
Ministry of Sports
Min. of Sports (Social
Sports Div.) Government
Bldg. Sejong-Ro 77
Chongro-ku Seoul Korea
02-734-0811 02-572-5927



강 봉화(姜鳳和)
Staff
Folk Dance Division
Leisure & Recreation
Association in Korea
182-162 Yeonhee-Dong
Seodaemun-Ku Seoul
Korea
02-544-5440 02-324-7786
02-543-7803



방 진주(房珍珠)
Buddhish Priest
Staff
Youth Section
Korean Young Buddhists
Federation
320-3 Seogyu-Dong
Seogyupo-Shi
Cheju-Do Korea
064-62-5675 064-62-5675



장 일홍(張日洪)
Head Officer
Secondary Edu. Section
Board of Cheju Education
Cheju-Do Educational
Committee 311-46
Yon-Dong Cheju-Shi
Cheju-Do Korea
064-27-0181 064-53-7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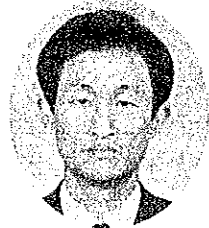
장 만식(張萬石)
PR Business
Public Relations Div.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342-21 Kil-Dong
Kangdong-Ku
Seoul Korea
02-962-5805 02-470-4433



김 정화(金正和)
Official
School Affair Bureau
Seoul Metropolitan
Board of Education
Samdug Apt 408 198-1
Wonchong-Dong Puchan-Shi
Kyounggi-Do Korea
02-736-3219 032-662-6696



김 광현(金洸炫)
General Clerk
Education Management
Education Board of
Kyungsangnam-Do
35-304 Myung Gok Apt
Myung Gok-Dong Chang
Won-Shi Kyung Sang
Nam-Do Korea
0551-84-1304 0551-84-1654



김 광식(金光植)
Management/Planning
Korean National Sports
Foundation
104-11 Joonggok 4-Dong
Sungdong-Ku Seoul
Korea
02-779-2618 02-445-2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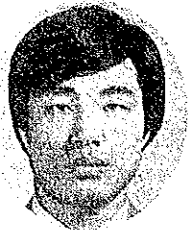
김 영록(金榮錄)
Section Chief
Athletics Division
Nam Do High School of
Music and Arts
6-301 Kwang Shin Apt.
Du Am-Dong Kwang Ju
City Korea
062-521-6052 062-523-2103



이 중일(李鍾一)
Social Education
Social Physical Edu.
Board of Education
Chungcheong Nam-Do
249-30 Yucheon-Dong
Chung-Ku Taejeon-City
Chungcheongnam-Do
Korea
042-44-9301 042-524-3436



임 덕수(林德洙)
Staff
Cultural Education Sec
National Museum of
Korea
Cultural Educatio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1 Sejong-Ro
Chongro-Ku Seoul Korea
02-739-3872 02-744-3238



박 호남(朴虎男)
Manager
Organization Division
Korea Youth
Association
490-13 (30/3) Bupyong
5-Dong Bug-Ku Inchon
Korea
02-841-9292 032-93-8494



박 석진(朴錫珍)
General Services Div.
Ministry of Education
4903-17 Shinkil-Dong
Youngdeungpo-Ku Seoul
Korea
02-72-3343 02-833-5936



박 승헌(朴承憲)
Senior Edu. Researcher
Office of Supervision
Ministry of Education
1-1405 Daelim Apt
Eungbong-Dong
Sungdong-Ku Seoul
Korea
02-720-3046 02-295-1702



위 옥환(魏玉煥)
Secretary
Arts Promotion Div.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Culture & Arts Bureau
Min. of Culture & Inform.
82-1 Sejong-Ro Chongro-ku
Seoul Korea
02-720-3836 02-486-1529



양 남진(梁南眞)
Official
Child Welfare Division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Child Welfare Division
Min. of Health & Social
Affairs Kwachon-City
Gyeonggi-Do Korea
02-503-7578 02-738-7229
02-503-7579



유 중춘(柳鍾春)
Official
Classification Dept.
Chun-Cheon Juvenile
Training School
372 Shinchon-Ri Shin-
Dongmyon Chunsunggun
Kangwon Province Korea
0361-52-9203 0361-3-7954

6. 관련 청소년 단체 주소록

- 청소년 육성 국민회의 (青少年育成國民會議)
(National Assembly for Youth Development NAYD)
3-1, Kamizonochō, Yoyogi, Shibuya-ku, Tokyo
- 중앙 청소년 단체 연합회의 (中央青少年團體聯絡協議會)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s in Japan)
Nihon Seinenkan 5F, 15, Kasumigaokacho, Shinjuku-ku, Tokyo
- 세계 청소년 교류 협회 (世界青少年交流協會)
(The World Youth Visit Exchange Association WYVEA)
Yoshida Bldg., 2-7-3, Hirakawacho, Chiyoda-ku, Tokyo
- 일본 국제 생활 체험 협회 (日本國際生活體驗協會)
(Japanese Association of the Experiment in International Living EIL)
Tachibana Bldg., 6F, 4-5, Kojimachi, Chiyoda-ku, Tokyo
- 전국 농촌 청소년 교육 진흥회 (全國農村青少年教育振興會)
(The Rural Youth Education Development Association)
Sue Bldg., 3F, 4-19, Shin-ogawacho, Shinjuku-ku, Tokyo
- 일본 경제 청년 협의회 (日本經濟青年協議會)
(Junior Executive Council of Japan JEC)
Randikku-Kandanishi Bldg., 3-2-7, Nishikanda, Chiyoda-ku, Tokyo
- 근로 후생 협회 (勤勞厚生協會)
(The Working Youth Welfare Association)
3-1, Kamizonochō, Yoyogi, Shibuya-ku, Tokyo
- 유스워커 능력 개발 협회 (ユースワーカー能力開發協會)
(Development Association for Youth DAY)
Hibiya Bldg., 6F, 1-1-1, Shinbashi, Minato-ku, Tokyo
- 국제 교류 서비스 협회 (國際交流サービス協會)
(International Hospitality and Conference Service Association IHCSA)
The 1st Annex of the Foreign Ministry, 2-2-1, Kasumigascki, Chiyoda-ku, Tokyo
- 청년 해외 협력 협회 (青年海外協力協會)
(Japan Overseas Cooperative Association JOCA)
Dai-2 Sano Bldg., 6F, 5-10-24, Minami-azabu, Minato-ku, Tokyo
- 국제 협력 서비스 센터 (國際協力サービス・センター)
(International Cooperation Service Center ICSC)
Economic Cooperation Center Bldg., Annex 42, Ichigaya Honmura-cho, Shinjuku-ku, Tokyo

한국 청년 초청사업 (1987)

1988년 12월 28일

간수 國際協力事業團

〒163 東京都新宿区西新宿2-1-1

新宿三井ビル内

발행 財團國際協力서비스센터

〒162 東京都新宿区市谷本村町142

經濟協力센터빌딩

JICA
AFRICANA

